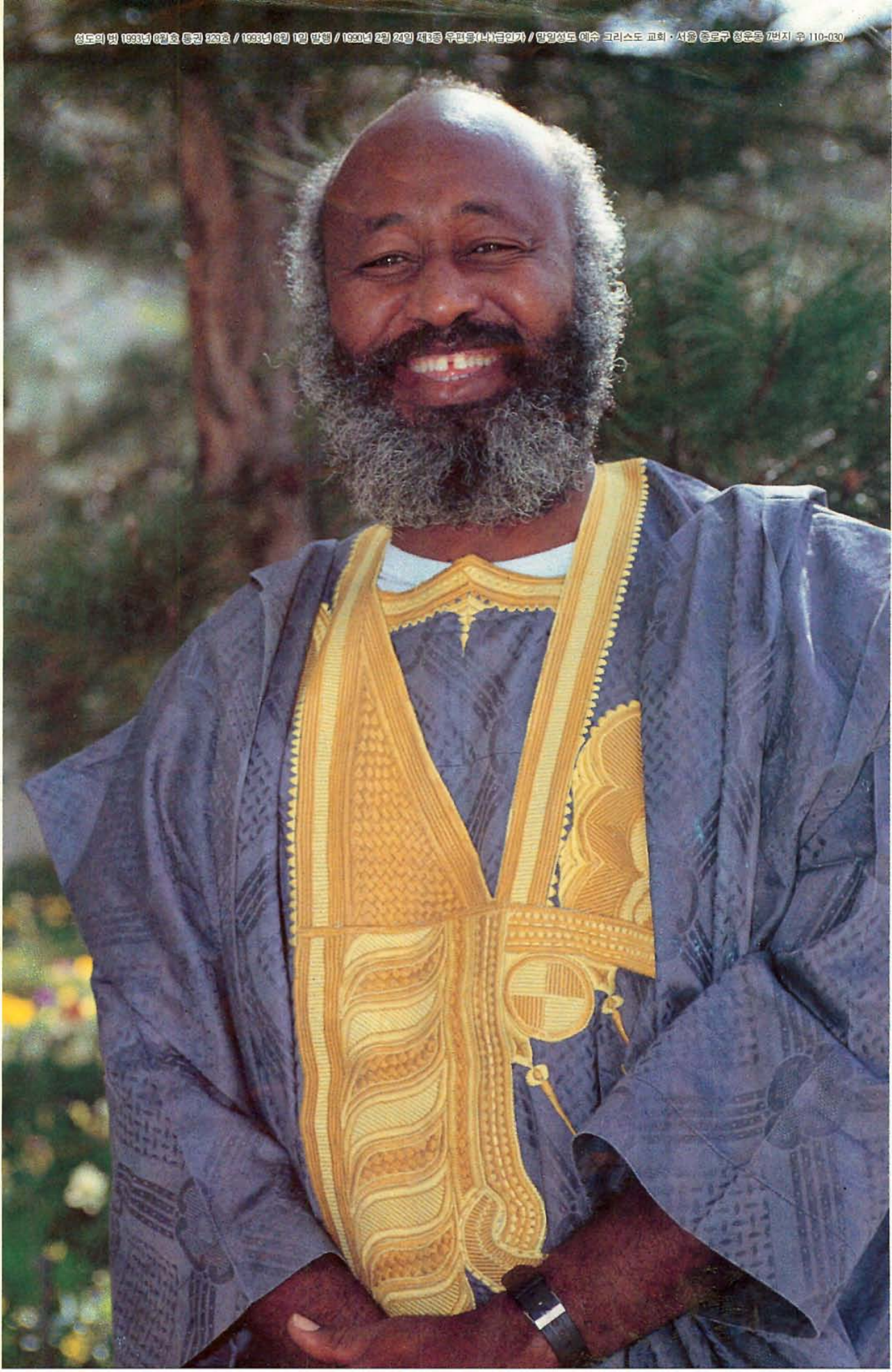


1993  
8

# 성도의 벗

만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표지 설명 :**

모디보 디아라는 고향인 아프리카  
서부에 위치한 말리 공화국에서 점령받은  
최초의 회원이 되었다.  
"시련이 축복으로", 8쪽 참조  
사진 촬영 : 크레이그 다이먼드

**어린이란 표지 :**

루이만 데이비드 헤르난데스 몬테리오는  
스페인 산타크루즈 데 테네리페에 살고  
있는 가족과 천지들에게 많은 행복을  
가져다 주고 있다. 14쪽 참조  
사진 촬영 : 줄리 와델

**일 반**

대관장단 메시지 : 경고의 음성 에스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 .....2  
 시련이 축복으로 모디보 디아라 .....8  
 결혼생활에서의 사랑과 웃음과 영성 비바라 워크맨 .....12  
 유럽 지중해 지역 : 새로운 도전과 성장 .....22  
 허버 제이 그랜트 : 변명하지 않는 사람 레온 알 하트슨 .....26  
 대한민국 : 조용한 아침의 나라 켈리 릭스 아담스 .....34

**청 소 년 란**

진정한 사랑과 행복은 무엇인가? 닐 에이 맥스웰 장로 .....19  
 물문경과 나 조지 딕슨 .....33  
 독자를 위한 참고사항 .....42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좋은 것 리사 에이 존슨 .....46

**정 기 특 별 기 사**

애독자 편지 .....1  
 방문 교육 메시지 : 우리의 지역 사회를 향상시킴 .....25

**어 린 이 란**

물문경 이야기 : 암몬이 라모나이 왕의 아버지를 만남 .....50  
 친구가 친구에게 : 로날드 이 포울맨 장로 .....52  
 지도자를 따르라 린다 에반스 .....54  
 심심풀이 .....58  
 함께 나누는 시간 : 예언자들을 따르라 주디 에드워즈 .....60  
 친구 사귀기 :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 산타크루즈 데 테네리페의  
 루이만 데이비드 헤르난데즈 몬테로 줄리 와델 .....63



성도의 벗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월간-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사모이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영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및 핀란드어.

격월간-인도네시아어, 타이어, 타히티어.

계간-아이슬란드어.

대판장단 : 애즈라 태프트 벤슨, 고든 비 힐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정위원회 :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톨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런, 리차드 지 스쿠트

고문 : 렉스 디 피네가, 찰스 디디에이.

로버트 이 웰즈

통 권 : 제329호, 제30권, 제8호

등록 :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 1993년 8월 1일(월간지)

발행인 : 한 인 상

편집인 : 한 상 의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우체국 온라인 010041-0024704-11

은행 지로 번호 3001543

인쇄인 : 삼립 인쇄 주식회사 김 현 수

© 1993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영어 승인-10/91. 번역 승인-10/91

August 1993 International Magazine의 번역본. Korean. 93988 320

성도의 벗 1년 구독료는 5,000원입니다. 권당 500원이며, 성도의 벗 해외 구독일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등) 12,000원, 2지역(필리핀, 중국 등) 16,200원, 3지역(중동 등) 23,200원, 4지역(중남미 등) 26,0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워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 센터(☎ 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SONGDO-UI POT(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Second-clas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ies.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Church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240-2947.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ONGDO-UI POT a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가장 훌륭한 간행물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간행물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생각해 볼 것도 없이 리아호나(스페인어 판)를 선택할 것입니다. 리아호나에는 기사마다 역경을 딛고 일어난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으며, 매 장마다 충실한 마음과 인내와 사랑에 대한 모범을 보여 주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특히 교회가 막 시작되고 있는 지역에 관한 기사를 무척 좋아합니다.

크리스티안 라미레스  
바라호나 지방부 바테이 지부  
도미니카 공화국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교회에 들어오기 오래 전부터 리아호나(스페인어 판)를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 회원인 저의 누님이 매달 리아호나를 집으로 가져 왔는데, 저는 거기에 실린 기사와 영적인 말씀과 애독자 편지를 읽고 이 교회와 그 사명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좀더 자세히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 복음 선교사들을 만나기 시작했으며, 결국 아버지와 함께 침례를 받았습니다. 지금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잡지를 정기 구독하고 있으며, 비회원 친구들에게도 선물하고 있습니다.

파트리시오 오 로보스  
킬로타 스테이크 코르비 워드  
칠레

영적인 발전

교회 회원이 된 지 2년이 된 지금, 저는 리아호나(스페인어 판)가 제 생활에 미친 영향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를 읽을 때마다 저는 참으로 좋은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대판장단 메시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분들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받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녀들과 함께 어린이란을 즐겨 읽습니다.

리아호나가 영적인 발전에 도움을 주고 믿고 있는 사람은 저 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다른 분들에게서 그와 똑같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주니 아라슬리 리베라  
라엔트라다 지방부 산타 바바라 지부  
온두라스

편집자 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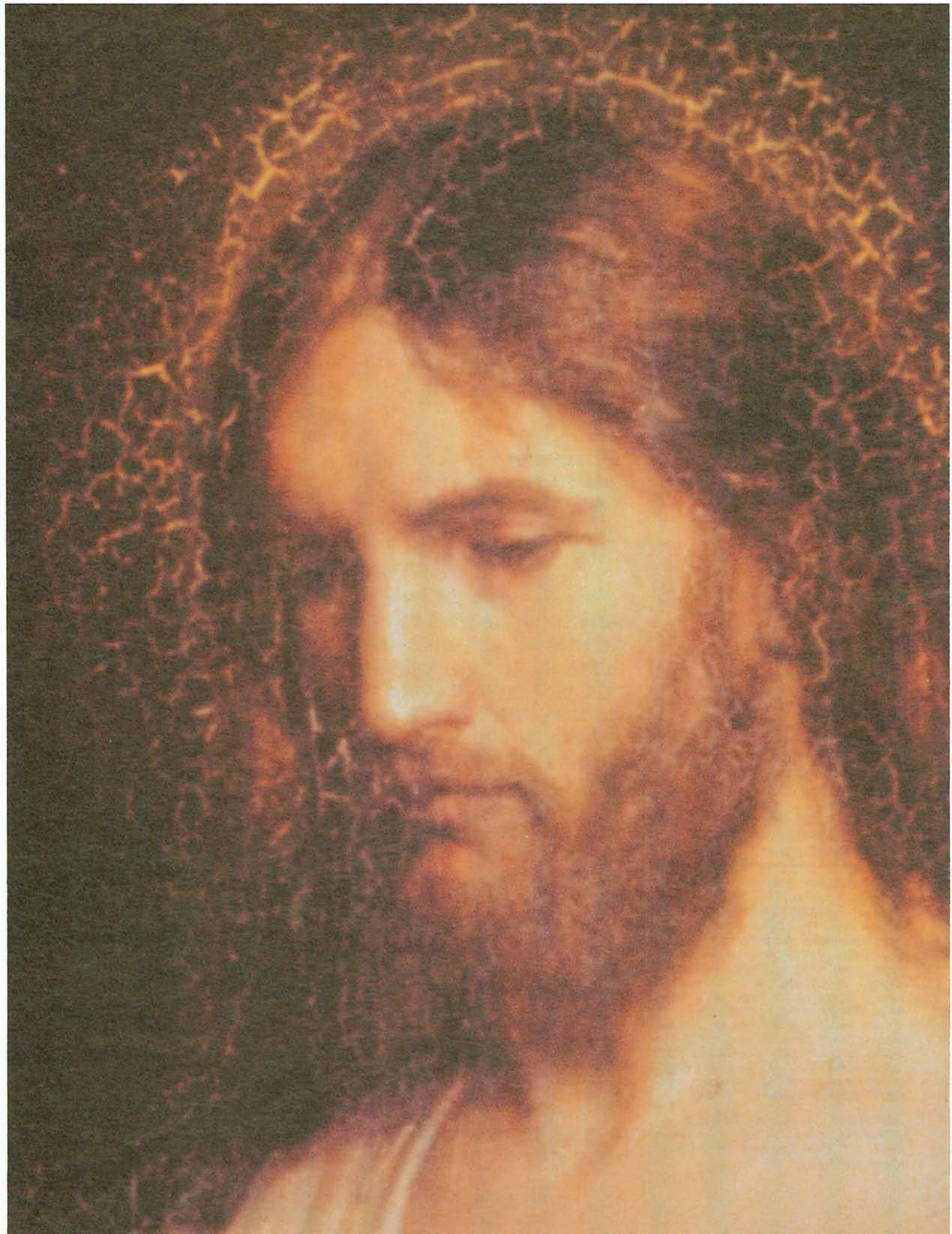
위의 애독자 편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받는 편지는 대부분 리아호나(스페인어 판) 독자들로부터 보내 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관심을 보여 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리며, 소식을 받을 수 있어서 기쁩니다.

리아호나 애독자 외에도 유럽, 아시아 및 남태평양 지역에 22개 언어로 출판되는 교회 잡지의 독자들의 소식도 기다립니다. 위의 모든 언어로 출판되는 교회 잡지의 내용은 기사와 삽화 및 사진에 이르기까지 거의 똑같습니다. 즉 여러분은 지역 소식을 제외하고는 전세계에서 모두 같은 기사를 읽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회는 전세계의 독자들이 교회 잡지에서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잡지에 실을 기사에 관해 고려하는 데 여러분의 의견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읽고 싶어하는 복음에 관한 주제, 즉 전세계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주제에 관한 제언을 보내 주셔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내용이나 경험담이 있다면 직접 기사를 적어 보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보내실 곳 : 서울 성동 우체국 사서함 22호 성도의 벗 담당자 앞. 보내실 때 성명과 주소, 스테이크/지방부 및 워드/지부를 꼭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타자하거나 정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고의 음성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 약

162년 전, 교회의 장로들이 그때까지 주어진 계시를 세상에 출판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대회를 열고 함께 모였을 때, 주님은 계시의 책에 부치는 “서문”(교리와 성약 1:6)이라 칭하신 계시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교리와 성약 1편으로 기록된 이 계시는 책의 서문이 마땅히 그래야 하는 바 대로 그 책에 들어 있는 계시를 주신 주님의 의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독자에게 교리와 성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의 저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이 책을 완성하셨습니다. 교리와 성약은 저자가 예수님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현대의 경전이라는 점에서도 교회의 표준 경전 가운데 매우 독특합니다.

이 서문의 앞부분에는 온 인류, 특히 주님의 교회 회원들에게 “경고의 음성”(4절)이 온 백성에게 미칠 것이므로 이 책에 주어진 계시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하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은 참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졌으며, 그 메시지는  
온 인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로나이 천사는 예언자에게 아직은 임하지 않았지만 곧 성취될 말일에 닥쳐올 심판에 관해 성경에 기록된 몇 가지 예언을 인용해 들려주었습니다.

“들으라, 오 너희 내 교회의 백성들아, 높은데 거하여 모든 사람을 굽어 보시는 이의 음성이 말하노라. 그러하도다.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 먼 곳에 있는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 바다의 섬 위에 있는 자여, 함께 들을 지어다.

“진실로 주의 음성은 만민에게 미치며 한 사람이라도 피할 자가 없나니, 보지 아니할 눈도 없으며 듣지 아니할 귀도 없으며 꿰뚫리지 아니할 마음도 없느니라.

“복음을 배반하는 자는 많은 슬픔으로 찢림을 받으리니, 저들의 죄악이 지붕에서 이야기되고 저들의 은밀한 행위가 드러날 것임이니라.

“말세에 내가 택한 제자의 입으로 경고의 음성이 온 백성에게 미치리라.

“저들이 나아갈 것일 때 막을 자는 한 사람도 없으리라. 이는 나 주가 저들에게 명하였음이니라.

“오, 세상의 주민들아, 불지어다. 이것은 나의 권능이요 내 종들의 권능이요, 나의 계명의 책에 부치는 서문이니, 내가 저희에게 명하여 너희에게 출판케 한 책이니라.

“그러므로 오 너희 백성들아, 두려워 떨지어다. 이는 나 주가 여기에 명한 것은 다 성취될 것임이니라.”(교리와 성약 1:1~7)

주님은 다음 세 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경륜의 시대에 주신 메시지를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부여하신 권세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땅의 주민에게 나아가는 자에게는, 믿지 아니하며 배반하는 자들을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인 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그러하도다. 진실로 하나님의 진노가 한없이 악인에게 쏟아지는 그 날,

“곧 주께서 오사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며, 저들이 이웃을 해아린 그 해아림에 따라 해아리시는 그 날

에 이르기까지 인 치는 권세가 주어졌느니라.”(8~10절)

다음 몇 구절에는 주님이 이 세대에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음성은 땅 끝까지 미치리니, 듣고자 하는 자는 모두 들을 수 있느니라.

“너희는 준비하여 장차 임할 일에 대비하라. 이는 주께서 가까우심이라.

“또한 주께서 진노하시고 주의 검이 하늘에 셋기웠은 즉 땅의 주민 위에 떨어지고,

“주의 팔이 나타나리니, 주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종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며 예언자와 사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백성으로부터 절단될 날이 임하리라.

“이는 저들이 나의 의식을 저버렸고 나의 영원한 성약을 깨뜨렸으며,

“주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주를 찾지 아니하고 도리어 모든 사람은 제 마음대로 생활하며 자신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구하였음이라. 그 형상은 세상의 모습이요, 본질은 하나의 우상이며 낡은 것이니 바빌론 곧 멸망할 대 바빌론 [에서] 파멸하리라.”(11~16절)

그런 다음 주님은 요셉 스미스가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 부름받은 이유를 밝히시고, 이 부름을 통해 온 인류가 어떻게 축복을 받게 되는지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땅의 주민에게 임할 재앙을 알고 있는 나 주는 나의 종 요셉 스미스 이세를 불러 하늘에서 그에게 말하며 그에게 계명을 주었느니라.

“또한 다른 자들에게도 계명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이 일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였나니, 이 모두는 예언자들이 기록한 바가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일렀으되, 세상의 약한 것이 나와와 능력있고 강한 자를 쳐부술 것이요 이로써 사람이 자기 이웃을 훈계하지 아니하며 육체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며,

“또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주 하나님 곧 세상의 구세 주의 이름으로 말하게 하며,





“그러므로 땅의 주민에게 임할 재난을 알고 있는 나 주는 나의 종 요셉스미스 이세를 불러 하늘에서 그에게 말하며 그에게 계명을 주었느니라.”(교리와 성약 1: 17)

“신앙이 땅에 증가되게 하며,  
 “나의 영원한 성약이 이루어지게 하며,  
 “나의 복음의 충만함이 미약한 자와 단순한 자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전파되며 왕과 통치자 앞에 전파되게 하기 위함이니라.”(17~23절)

교회가 조직된 지 1년이 지났으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음 몇 구절에서 주님은 이 계시를 통해 사람들이 오늘날 교리와 성약을 읽음으로써 받게 되는 축복인 삶의 변화를 어떻게 실현했는지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보라,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이같이 말 하였노라. 이 계명은 나의 것이요, 미약한 나의 종들에게 저희의 말로 준 것이니, 이는 저들이 이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또한 저들이 잘못을 저질렀으며 알게 하기 위함ियो,

“지혜를 구하였으며 가르침을 받게 하려 함ियो,

“죄를 지었으며 회개하기 위하여 징계받게 하려 함ियो,

“검손하였으며 강하게 되어 하늘에서 내려오는 축복을 받게 하며 때때로 지식을 얻게 하려 함ियो,”(24~28절)

주님은 다음 두 절에서 주께서 그분의 종들에게 몰몬경을 세상에 퍼내고 계시를 받으며, 지상에서 “유일하고 참된 살아 있는 교회를 이끌어 낼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밝히고 계십니다.

“참으로 나의 종 요셉 스미스 이세가 니파이인의 기록을 받은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으로써 몰몬경을 번역할 능력을 얻게 하려 함ियो,

“이 계명을 받은 자들이 이 교회의 기초를 닦아 유일하고 참된 살아 있는 교회를 희미하고 어두운데서 이끌어 내어 온 땅 위에 세울 권능을 갖게 하려 함이니, 나 주는 이 교회를 매우 기쁘게 여기느니라. 기뻐한다 함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하여 말함이 아니요, 교회 회원 전체를 가리켜 말함이니,”(29~30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회원들에게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영을 잃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나 주는 털끝만큼의 죄도 묵과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나 회개하여 주의 계명을 준행하는 자는 용서받으리라.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받았던 빛마저 빼



앗기리니, 이는 나의 영이 항상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만군의 주가 이르노라.”(31~33절)

여기에서 우리는 지상에서 평화가 박탈당하고 사탄이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분의 성도들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실 것입니다.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땅에 사는 주민들아, 나 주는 이 일을 기꺼이 모든 인간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이는 내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며 모든 자로 하여금 그 날이 속히 임하는 줄 알게 하려는 연고라. 지상에서 평화가 박탈당하며 악마가 자기의 영토를 지배할 권세를 갖게 될 그 시각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그때가 임박하였도다.

“그러나 주는 그의 성도를 다스릴 권세를 가지시며 저들 가운데서 통치하시며...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리라.”(34~36절)

결론으로 주님은 이 계시는 참되며 여기에 들어 있는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간증하시고, 이어서 주님이 택하신 종들에게 명하여 전하는 말씀은 곧 주님의 음성이며 또한 주님의 계시와 계명은 참되다는 것을 성령이 증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러 계명을 상고하라. 이는 참되고 신실하며 그 가운데 있는 예언과 약속은 모두 성취될 것임이니라.

“나 주가 이야기한 바는 참되도다. 이를 변경하지 아니 하거니와 천지가 없어져도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내 자신의 음성이거나 내 종의 음성이거나 다 같으니라.

“보라, 주는 하나님이지요 성신은 증거하시나니, 기록은 참되며 진리는 영원토록 불변하느니라. 아멘.”(37~39절)

제가 말일의 세상의 상황에 관해서 주님의 이 말씀을 전해 드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선교사들을 통해 지상의 모든 나라에 경고의 음성을 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들을 보내서 우리의 메시지를 기꺼이 받아들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접하는 모든 젊은이들이 주님의 사자가 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머지 않아 세상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주님의 계명과 계시를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모든 나라에 임할 재난을 예견하셨습니다. 이를 대비해 주님은 크신 사랑과 자비로써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여러 종들을 세우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셔서 온 인류 가운데 신앙이 증진되고 주님의 영원하신 성약이 맺어지게 하셨습니다.

이 영원한 성약은 바로 주님의 복음입니다.

이 계시(교리와 성약 1편)에 들어 있는 몇 가지 내용에 유의하는 교회 회원들은 분명히 강화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오늘날 그분의 교회에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둘째 : 요셉 스미스가 받은 계시는 주님이 직접 주신 계명입니다.

셋째 : 이 계명은 하나님이 “미약한 [그분의] 종들에게 저희의 말로... 저들이 이를 깨닫게 하려”(24절)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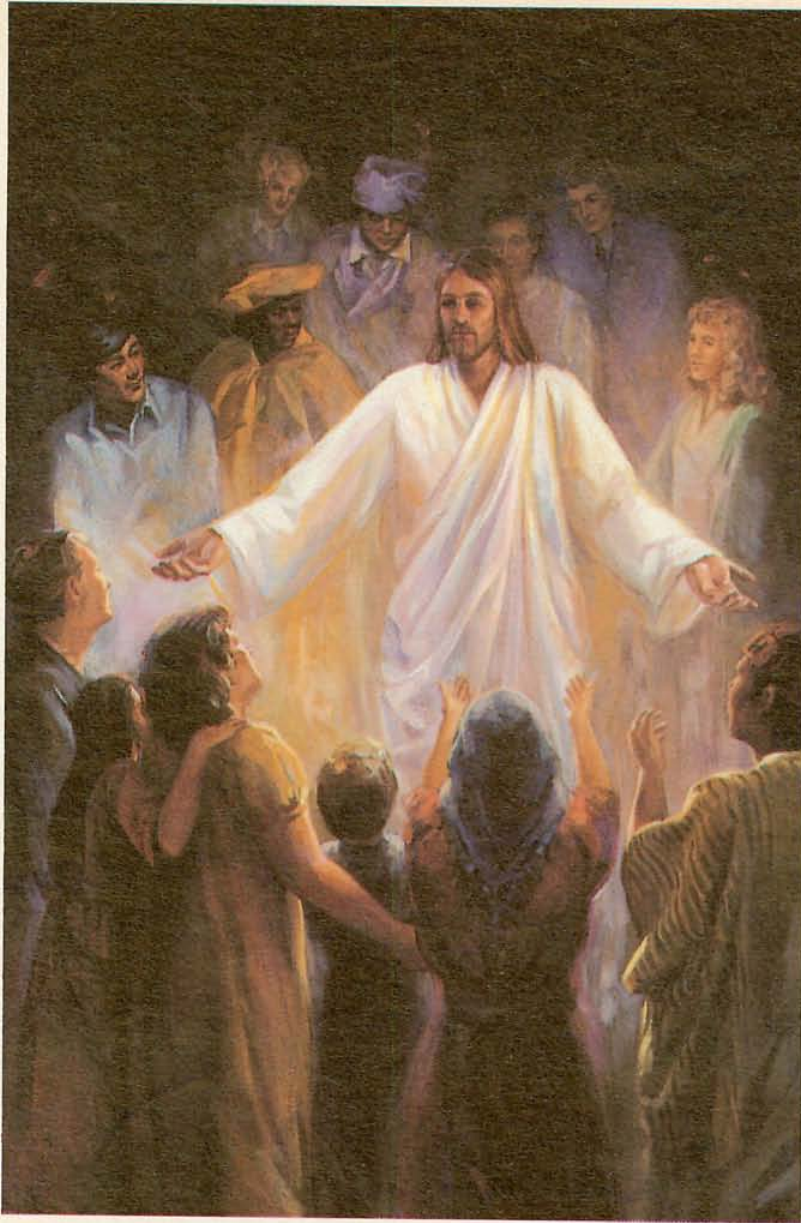
넷째 : 몰몬경은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 하나님의 권세로써 번역되었습니다.

다섯째 : 요셉 스미스와 그의 후계자들은 오랫동안 “희미하고 어두운 데” 머물러 있던 “유일하고 참된 살아 있는 교회를”(30절) 조직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복된 교회는 현재 선한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섯째 : 주님은 교회 전체에 대해서는 기쁜 마음을 갖고 계시지만 회원들 개개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할 경우에만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일곱째 : 비록 지상에서 평화가 박탈당하고 사탄이 큰 권





지상에서 평화가 박탈당할 날이 속히 임할지라도, “주는 그의 성도를 다스릴 권세를 가지시며 저들 가운데서 통치하시며... 곧 세상을 심판하러” (교리와 성약 1:36) 오실 것이다.

세를 갖게 된다 해도, 주님은 그분의 성도들을 다스리실 권세를 가지시며 “저들 가운데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여덟째 :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종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도록 그분이 직접 주신 것이든 영감과 계시를 통해서 주신 것이든 모두 성취될 것이며, 성령은 계시와 계명이 참된지를 알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이 교회, 곧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주님은 교회의 발전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그분의 종들 가까이 계시며, 자신이 임명하신 종들을 통해 우리 가운데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오늘날에는 주님이 선택하신 대관장단이 주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참된 예언자입니다. 그는 이 교회의 기초를 놓았으며, 주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교리와 성약은 참됩니다. 이는 교리와 성약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이며, 그 메시지는 온 인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 모두 주님의 계명에 참되고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벤슨 대관장께서 1986년 3월 22일 오하이오주 하이람에 있는 어느 예배당 기공식에서 하신 말씀에서 발췌.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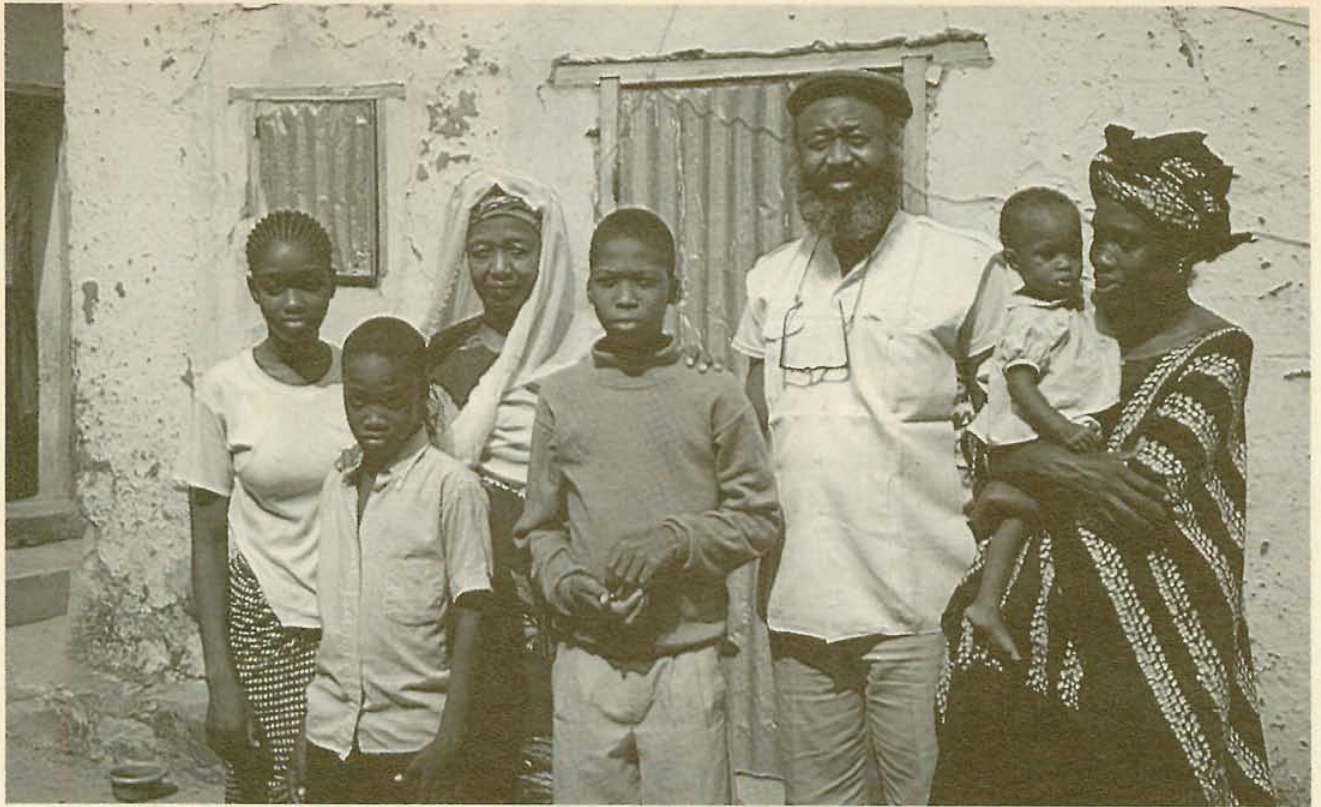
1. 교리와 성약 1편은 주님이 직접 주신 이 책에 부치는 서문으로, 여기에는 온 인류에게 이 계시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권유하는 말씀이 들어 있다.

2. 주님은 이 서문에서 말일의 재난을 예고하시고 요셉 스미스가 복음을 회복시키기 위해 부름을 받은 이유를 밝히셨다.

3. 주님은 비록 지상에서 평화가 박탈당하고 사탄이 큰 권세를 갖게 될지라도, 주님이 그분의 성도들을 다스리실 권세를 갖게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4. 주님은 교회 전체에 대해서는 기쁜 마음을 갖고 계시지만 회원들 개개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할 경우에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





모디보 디아라 (맞은편 쪽)가 말리 공화국의 바마코에 있는 집 밖에서 가족과 함께 있다.(위) 이 사진을 찍을 당시 장남인 아마두는 캐나다 몬트리올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었다.

# 시련이 축복으로

모디보 디아라가 철리 라운디 아놀드와 제닌 튜에게 들려준 이야기

**제** 이름은 모디보 디아라입니다. 저는 1981년에 조국 말리 공화국에서 처음으로 침례받은 회원이 되는 영예를 누렸습니다. 침례를 받고 난 후 제 생활은 믿기 어려울 만큼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우리 집 개가 병에 걸렸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은 더욱 믿기 어렵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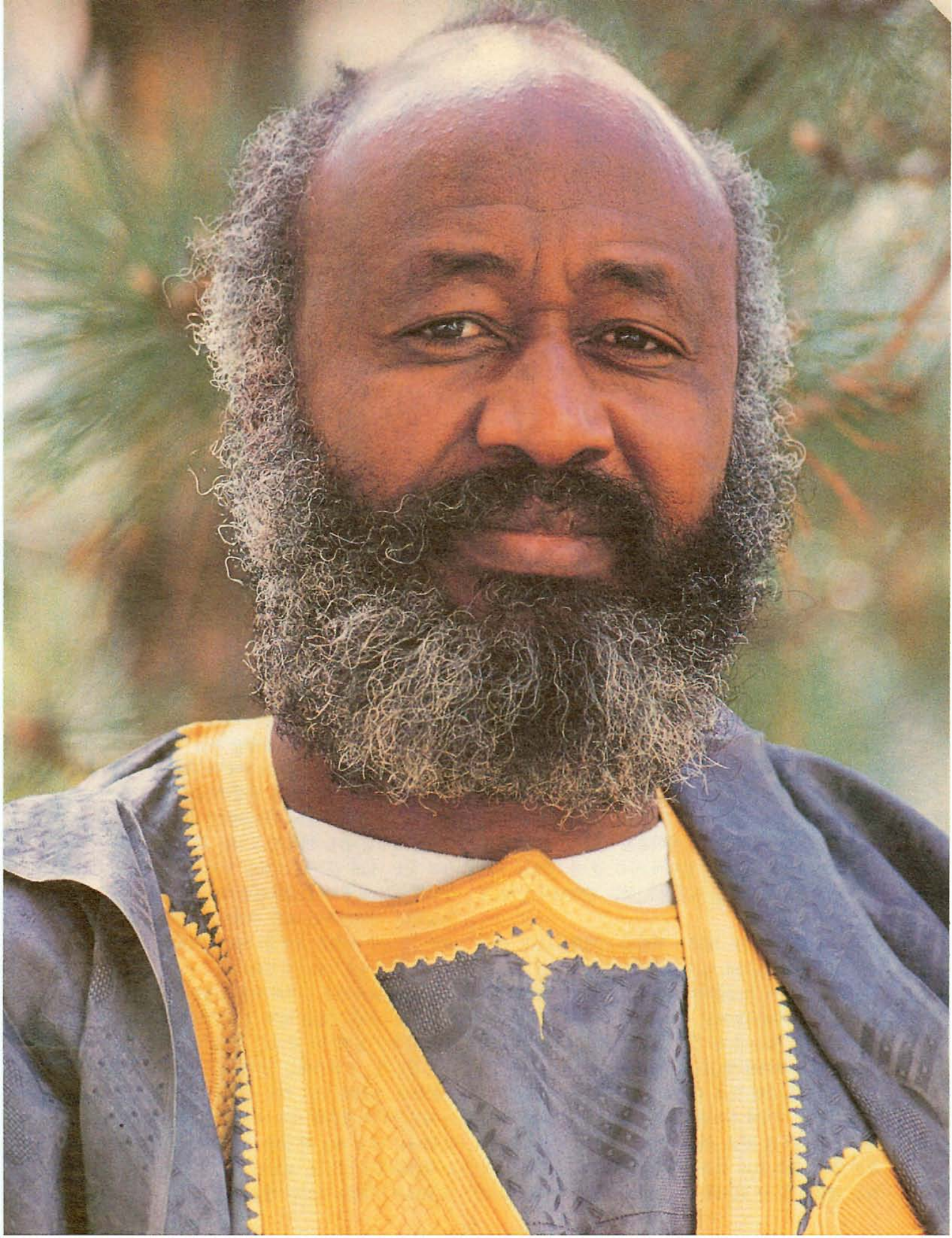
말리 공화국은 아프리카 북서부에 있습니다. 기후는 무덥고 건조하며 먼지가 많은 곳이지요. 불어가 공용어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방어인 밤바라어를 쓰고 있으며, 국민들 중 대부분은 이슬람 교도입니다. 수도인 바마코는 니제르강변에 세워진 중간 크기 정도의 도시인데, 이곳에서 우리 가족은 전형적인 말리인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사각형의 네 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울타리가 없는 넓은 마당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조그만 방들은

마당으로 통하게 되어 있으며 마당에 있는 키 큰 나무 그늘은 가족들이 모이는 곳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한쪽 벽에다가 울타리를 쳐서 닭장과 토끼 우리로 쓰고 있으며 염소는 먹이를 찾으러 이리저리 마음대로 돌아다니도록 놓아 기릅니다.

어느 날 우리 집 개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광견병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학교 교사였는데 반 학생 한 명이 말리 공화국에서 일하는 미국인 수의사 제리 자그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자그 박사를 집으로 초대해서 우리 관습대로 아내에게 그분을 위해 홍차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가르침과 어긋난다는 이유로 홍차를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 대답에 흥미를 느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분이 저희 집을 방문하고 나서 몇 가지 좋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선 우리 집 개가 광견병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그 박사가 제게 자신의 불어 교사가 되어 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불어 공부 끝날 때마다 자그 박사는 제게 그분이 다니는 교회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분은 두 미국인 가족이 참석하는 교회 예배 모임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모임은 어느 가정집에서 열렸으며 영어로 진행되었는데, 당시 저는 영어를 할 줄 몰랐지만 교회 회원들이 내게 불어로 된 물문경과 교리와 성약 및 기이한 업적을 주었습니다. 영이 강하게 임하였으며 저는 결국 개심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개종 후 저는 더 좋은 남편과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제가 것처럼 크게 변한 모습을 보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위로 두 아들인 아마두와 가우수도 교회에 관해 관심을 보이며 물문경을 읽기 시작하더니 1984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 다른 청소년들을 초대해서 교회 필름을 보여 주었으며 말리 공화국에 사는 미국인 회원들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지부가 공식적으로 조직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표지에 기록이라고 적힌 푸른 공책에 성찬식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회원으로서 저는 많은 축복을 받았으나, 뒤이어 제 신앙이 크게 시험받는 시기가 왔습니다. 1988년 2월에 저는 교사직과 교사 연합의 지도자 직책을 잃게 되었습니다. 일 자리를 구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해 보았지만 얻는 것은 좌절감뿐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헌신적으로 일했는데, 이제 무엇으로 아내와 여섯 아이들을 먹여 살릴 것인가? 또 생활이 어려워서 우리 집에서 사는 열 한 명이나 되는 친척들을 어떻게 부양할 것인가? 하는 과제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 푼이라도 벌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아내는 샴바느질을 했으며 아마두와 가우수는 선반을 사용해서 도구를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구두를 닦았으며, 저의 어머니조차도 조그만 양념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가족이 오랫동안 소중히 여겨 왔던 자가용을 팔아야 했습니다. 저는 주님께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도와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솔트레이크시티의 교회 본부로부터 밤바라어로 번역된 복음 원리 이야기(한국어로 번역 안됨) 책이 든 소포를 보내 왔습니다. 본부에서는 저에게 그 번역을 검토해 줄 수 있으며, 또 찬송가 12곡을 번역해 줄 수

있는지를 문의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자마자 저는 그 일의 중요성을 깨닫고 가능한 한 정확하게 번역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적당한 단어나 표현을 찾으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어떤 때는 마치 누군가가 제게 그것을 불러주는 것처럼 놀라운 방법으로 마음이 열리기도 했습니다.(번역을 끝낸 후 저는 본부에서 제게 지불하려는 돈의 대부분을 그냥 두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저의 십일조로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암담한 상황 때문에 저는 끊임없이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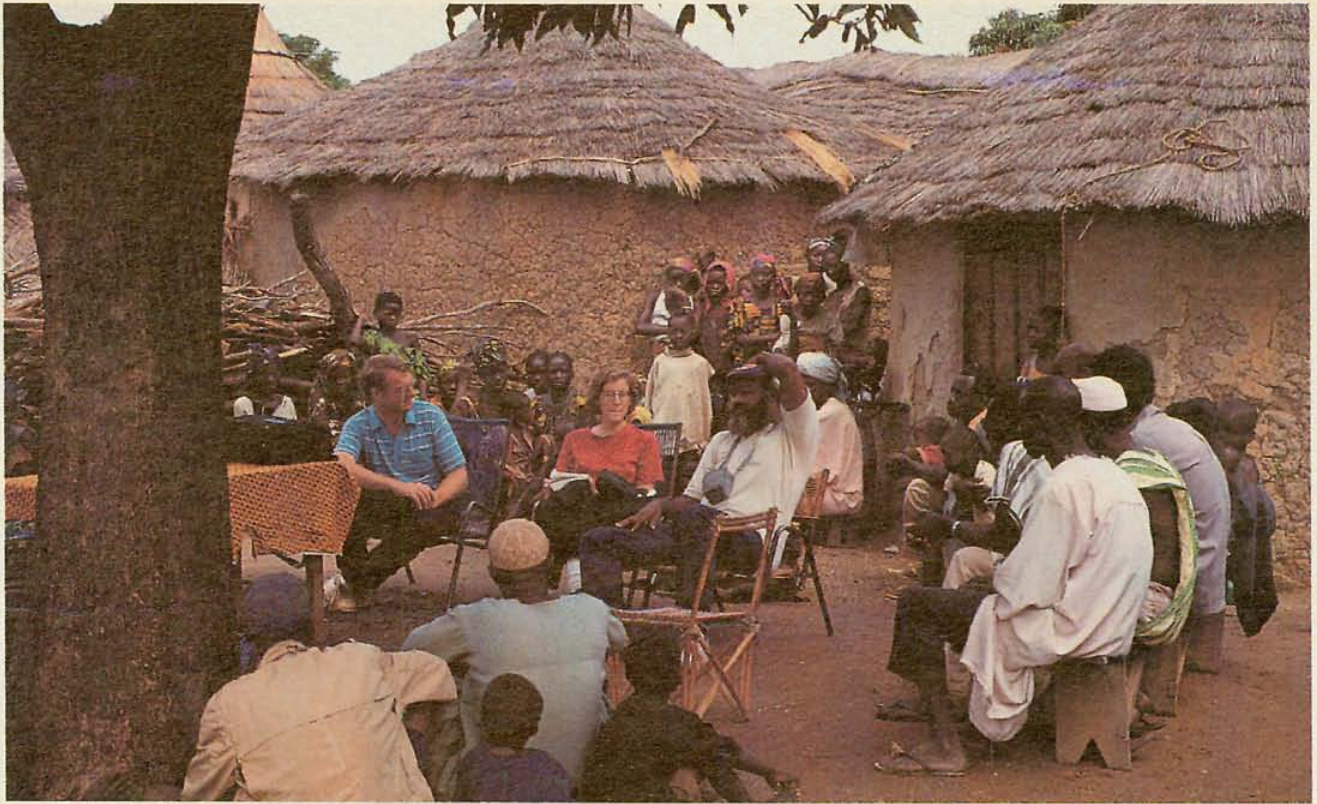
그런데 저에게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생겼습니다. 5월에 저는 미국인 의사, 제임스 퍼와더라는 옛 친구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1985년에 퍼와더 박사가 말리 공화국을 방문했을 때 그를 만났는데, 그때 저는 그의 요청으로 함께 말리 공화국의 여러 지역을 여행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이 제게 왕복 비행기표를 보내어 미국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처지에 놓인 가족을 두고 떠난다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교회 회원들은 저에게 그 초청을 받아들이라고 권하면서,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주님께서 아마 성전에 가도록 길을 열어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많은 회원들처럼 저도 “언젠가” 성전에 가고 싶은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마음이 혼란스러웠지만 저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미처 알아차리기도 전에”(니파이일서 4:6 참조)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토록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그렇게 경비가 많이 드는 여행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후 퍼와더씨는 성전에 가고 싶은 저의 간절한 소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그분의 집에서 2,00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퍼와더씨는 교회 회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당신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솔트레이크까지의 비행기표도 사드리죠.”라고 말했습니다.

솔트레이크시티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교회 본부를 방문했습니다. 결코 그날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칠십인 정원회 회원이신 알렉산더 모리슨 장로님이 저를 장로로 성임해 주셨으며, 그 다음에는 성전으로 가서 엔다우먼트를 받았습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친절하였으며, 그곳의 아름다움과 평온함 또한 제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 밖에도 난생 처음 본 젊은 선교사들에게서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저는 우리 아들들도 선교사로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디아라 형제 (가운데 앉은 이)가 마을 지도자와 말리 공화국의 웰레스부구에서 농업 및 교육 사업을 후원하는 자선 단체 대표들과 만나고 있다.

다음날 저는 말리 공화국의 몇몇 농업 및 교육 사업을 후원하는 자선 단체 사무실을 방문해서 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기를 바라면서 몇몇 책임자들을 만났지만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말리 공화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런 후에도 우리 가족은 다섯 달이나 더 신앙의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성전 의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어려운 시련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종종 깊은 강물에 빠진 사람과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매일 주님께 우리를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구해 달라고 간구드렸습니다. 그해 11월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솔트레이크시티에 갔을 때 방문했던 자선 단체로부터 저를 그들 단체의 말리 공화국 지역 책임자로 채용했다는 전보가 왔습니다. 저는 주님의 손길이 저를 그 강물에서 끌어 올려 주셨다는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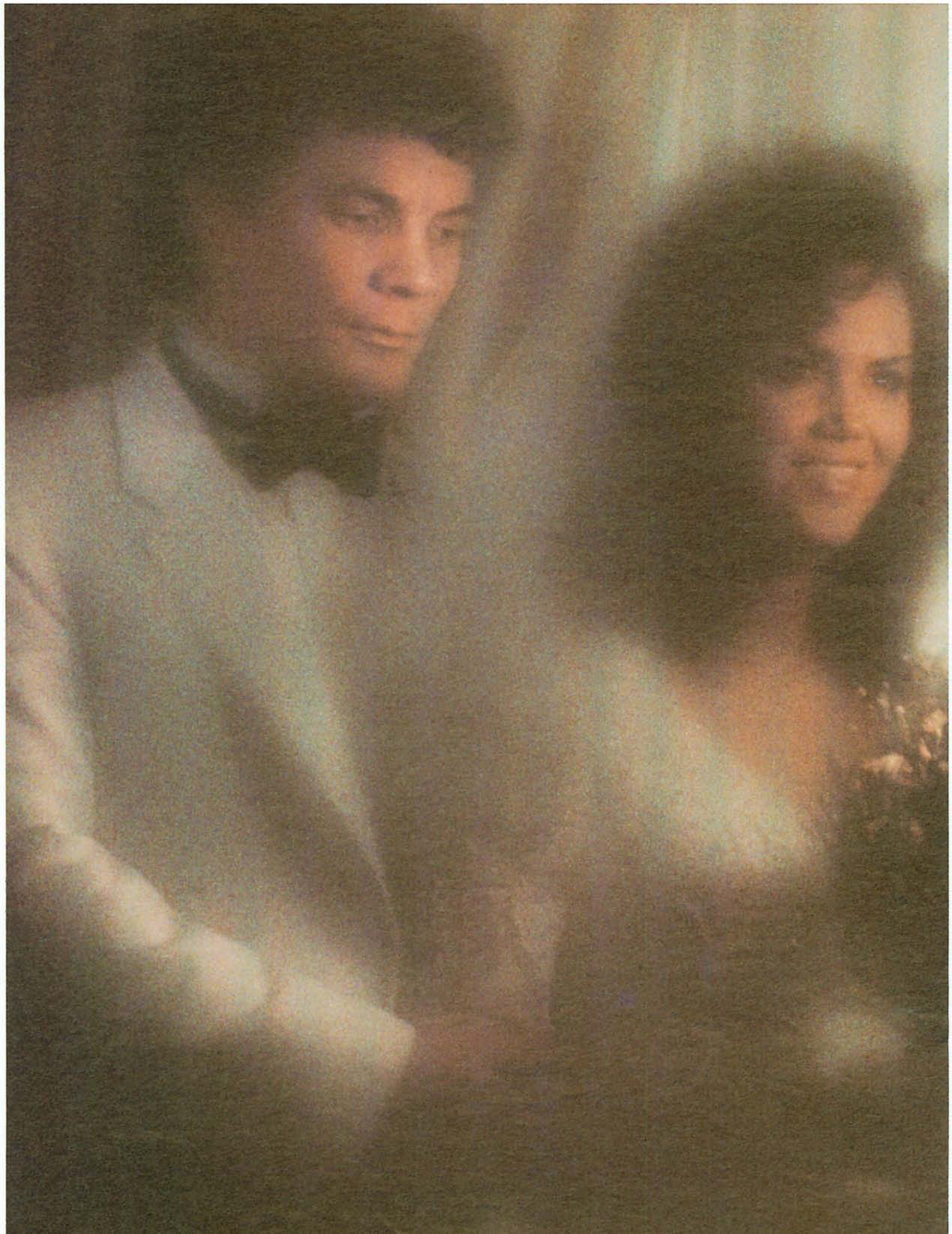
그 일은 정부 관리와 지역 훈련자 및 촌장들과의 교섭을 요하는 매우 힘든 일입니다. 불가능한 듯해 보이는 일을 시작할 때마다 항상 “그 일은 결코 못해 낼거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저는 주님이 저를 도울 힘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기도했으며, 문제들이 저도 모르게 해결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부자는 아니지만 가족과 또 제게 의존하는 다른 사람들을 부양

할 정도는 되었으며, 또한 이제는 사업상 일 년에 한번씩 유타주로 여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여행 중에 성전에 참여하며 때로는 연차 대회에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992년에 우리 아들인 아마두가 불어 사용권인 캐나다에서 선교 사업을 수행한 것입니다. 제 아들은 그곳에서 아프리카 이민과 이슬람교도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침례를 베푸는 일을 도왔습니다. 지금 아마두와 가우수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가우수 역시 언젠가 선교사로 봉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가우수가 선교 사업을 하게 되기를 기도하며, 나머지 가족도 교회에 가입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 모두가 훌륭한 학생과 정직한 시민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말리 공화국에 교회가 조직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이곳 주민으로서 제가 유일한 교회 회원입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기도하고 몰몬경을 읽음으로써 신앙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표지에 기록이라고 적힌 닳아 해진 푸른 공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속에는 또 다른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제게 부어 주신 축복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







결혼 생활에서의

# 사랑과 웃음과 영성

바바라 위크먼

결혼 생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결혼 생활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균형잡힌 영양을 공급한다.

**우**리는 래리와 그의 아내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의과 대학에 다니면서 시간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없을텐데, 그들은 자주 테니스를 치러 다녔으며, 심지어는 휴가를 즐기기도 했다. 당시 우리는 그들보다 조금 더 나이를 먹어서 세상 물정에 약간은 더 밝았기 때문에 그들처럼 함께 즐기는 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기에는 주어진 인생이 너무 짧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십 년 동안 그들의 즐거운 결혼 생활이 변함없이 유지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하는 자리엔 늘 미소와 웃음이 따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 부부를 만나기를 좋아했다.

우리가 래리를 만난 지 얼마 안돼서 그는 우리에게 자신의 철학을 말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영원한 관계입니다. 결혼 생활이 굳건하고 행복하다면 인생에서 어떤 시련이 닥쳐 올지라도 극복할 수 있죠.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어떤 훌륭한 일이나 직업도 그 손실을 보상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저에게는 결혼 생활이 시간과 돈과 힘을 투자하는데 가장 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는 남편 댄과 함께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



사람들은 결혼 생활에서 서로에게 편안한 느낌을 주는 깊은  
우정을 바탕으로 서로 사랑하고 호감과 매력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한다. 우리는 웃음과 즐거운 일들과 가족에 관한  
추억을 원한다.

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서로 사랑에 빠졌던 일, 영적으로 발전했던 일, 38년 동안 우리를 웃고 울게 했던 일과 아홉 자녀들 그리고 스물 여섯 번이나 이사를 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았다.

그러면서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크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 인지를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그것은 사랑과 웃음과 영성이다. 사람들은 결혼 생활에서 서로에게 편안한 느낌을 주는 깊은 우정을 바탕으로 서로 사랑하고 호감과 매력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한다. 또한 웃음과 즐거운 일들과 가족에 관한 추억이 풍성하며, 영원한 것들에 관해 함께 기도하고 연구하고 대화하는 영적인 풍요로움을 원한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영에 이르고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요한삼서 11:4)하는 것을 지켜 보고 싶어한다.

현재와 같은 혼란한 세상에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남편과 내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혼란한 상황에 거의 굴복당하게 되었을 때쯤, 나는 평화라는 그림을 떠올렸다. 그것은 나이가 가라 폭포 위로 뿜은 가느다란 나뭇가지 위의 등지에 앉아 있는 작은 새의 그림이다. 나는 남편과 내가 마치 등지 속에 앉아 있는 평화로운 새를 연상시키는 온정과 행복과 영이 깃든 가정을 꾸며가는 결혼 생활을 상상해 보았다. 남편과 나는 사랑과 웃음과 영성을 사용하여 우리가 꿈꾸는 것처럼 가정을 해의 왕국의 결혼 생활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 · 사랑 ·

결혼 생활의 중심은 사랑인데, 그것은 의로운 생활과 훌륭한 관계를 통해 발전하며 강화된다.

결혼하기 며칠 전에 남편은 내게 “내가 항상 올바르게 알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옳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 때는 꼭 실행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결혼 하던 날 남편은 아침 일찍 편지를 써서 우리 아파트로 보냈다. 그 편지에는 “나는 지금 막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면서 당신에게 결코 불친절하거나 거친 말을 쓰지 않겠다고 약속했소.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이 일만큼은 반드시 성취할 것이요. 부디 그렇게 되도록 내게 대해 인내하

고 격려해 주시오.”라고 써어 있었다.

나는 남편의 곱슬머리와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는 모습을 무척 좋아하지만, 남편을 더욱 사랑하게 만든 것은 그의 의로움과 친절함일 것이다.

우리의 사랑이 계속 커가면서 나는 남편에게 나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더욱 매력적인 모습을 가꾸고 더욱 완벽한 주부가 되려고 하는 것 등은 그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남편은 나에게서 희망에 가득 찬 모습을 기대했다. 희망과 낙천적인 마음이 더 중요한 세계에서는 이해 관계란 것이 없다. 남편은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과 되고자 애쓰는 것에 대해 내가 기뻐하며 만족해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가족과 함께 하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특권을 위해서라면 나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다.

남편이 자녀와 가정에 대한 나의 수고에 감사를 표시할 때마다 나는 더욱 잘하고 싶어진다. 남편 역시 내가 가족에 대한 남편의 관심과 가족을 부양하는 일에 보여 주는 근면함과 훌륭한 성품에 경의를 표할 때마다 더욱 잘하려고 노력한다. 만일 내가 나를 사랑에 빠지게 만든 남편의 특성에 감사를 표한다면 우리 사랑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러나 불친절한 말과 비난으로 남편의 품위를 조금씩 깎아 내린다면, 내 스스로 해의 왕국의 가정을 세워야 할 바로 그 토대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나는 또 뺨에 가볍게 키스하는 것과 두 팔로 안아 주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나는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나를 안아 주는 것이 우리 부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다. 그 느낌은 하루 종일 지속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는 지속된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다시 포옹을 해야 한다.

서로 사랑한다고 해서 반드시 개성까지 닮아가는 것은 아니다. 우리 친구인 클레어는 스포츠를 무척 좋아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테니스를 좋아하는 반면 그의 아내인 린다는 바느질과 요리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린다는 테니스를 배웠다. 클레어와 친구인 존이 한 편이 되고 그들의 아내가 한 편이 되어 치른 경기에서 클레어 팀이 진 적이 있는데, 클레어는 이 날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긴다. 동시





에 그는 아내의 재능과 아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더욱 높이 평가하게 되었다.

나는 부부의 이러한 차이점이 부부가 서로 떨어져 있을 때보다 둘이 힘을 합쳐 더 큰 하나를 만들어 내는 데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예를 들면, 남편과 나는 서로 상반되는 방법으로 결정을 내린다. 나는 모든 각도에서 면밀히 검토해 보려고 하며 사소한 문제까지도 걱정하는 편

이다. 남편은 문제를 보고 재빨리 분석하여 종종 자신의 편의 위주로 결정하고서는 다시 되돌아 보지 않으려 한다. 남편은 나에게 각자의 방법이 다 가치있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우리는 개인적인 판단을 피하면서 서로 대화를 통해 주어진 상황에 따라 어떤 접근법이 더 적절한지를 결정할 수 있다.

우리는 남편과 아내로서 각자 개인적인 성장과 인생의





도전에 맞서 투쟁하는 동시에 상대방에게 자신의 모든 생활을 맞추어 나갈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서로가 공통으로 가진 믿음을 생각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하기 때문에 사랑해요.”, “...에 대해 감사해요.”, “당신이 ...해서 너무 자랑스러워요.”, “...에 대해 미안해요.”라는 말과 함께 서로를 안아 주는 그런 순간들을 통해서 영원한 관계를 더욱 굳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러한 순간들을 통해서 결혼 생활의 정수가 되는 사랑을 키워 가기 때문이다.

. 웃음 .

정욕이 사랑이 아닌 것처럼 웃음도 때로는 기쁨이 아닐 수 있다. 배우자를 조롱의 대상으로 삼거나 품위 없는 농



우리는 해의 왕국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해의 왕국에 속한 사람처럼 생활할 때 우리의 영이 기뻐한다. 해의 왕국의 원리에 기초를 둔 결혼 생활은 그것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두 사람의 힘이 결합된 것보다 더 큰 힘을 갖는다.

담으로 격하시킨다면, 그것은 곧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도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 온다. 이러한 종류의 웃음은 합당치 못하다.

그러나 인생의 시련을 부드럽게 해주는 건전한 유모어를 사용하는 것은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 한 가지 방법이다. 부부가 서로 결혼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함께 있으면 행복하기 때문이다.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서로를 웃게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 되겠는가. 어떤 상황에서든간에 남편의 유모어는 우리 가족에게 기쁨과 위안이 되었다. 어느 날 내가 바느질을 하다가 카페트 위에다 바늘을 잃어버린 적이 있다. 그러자 남편은 무릎을 꿇고 그것을 찾기 시작했다. 내가 도와 주려고 하자 남편은 “아니, 괜찮소. 곧 찾아낼거요. 바늘에 손이 찢릴테니까.”라고 말하였다.

어느 부부에게나 그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유쾌한 추억이나 사건이 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추억 중 하나는 오래 전에 남편이 마음속에 떠올렸던 생각에 관해 내게 이야기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데는 둘 다 잊고 있지만, 남편이 잠시 머뭇거렸기 때문에 내가 통명스럽게 그것을 무시해 버렸던 것 같다. 그러자 남편은 “잠깐 기다려 봐요. 내 생각엔 아주 멋진 생각이었는데”라고 말했다. 그때부터 우리는 상대방에게 퇴짜맞았다고 느낄 때마다 “잠깐 기다려 봐요. 내 생각엔...”이라고 말하고는 둘 다 웃어버리곤 한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분명히 전해지며 또한 정답게 들린다.

재미있는 교훈이 될 수 있는 가정 불화도 있다. 우리 삼촌과 숙모는 다른 사람을 놀려주는 장난을 무척 좋아하였다. 그분들은 수도물이 없는 농장에서 살았다. 어느 출고 비오는 저녁에 삼촌은 흠뻑 젖어서 집안으로 들어왔는데 숙모가 벽난로 옆에서 기분 좋게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숙모는 “여보, 당신은 이미 비에 젖어서 몸이 추울테니까 내친김에 물 한 통만 떠다 주시겠어요?”라고 말하였다. 삼촌은 밖으로 나가 물을 떠갖고 와서는 숙모에게 부어버렸다. 그리고는 “이제 당신도 몸이 젖어서 추울거요. 당신도 물을 떠올 수 있겠소?”라고 말하였다. 그 이야기를 되풀이할 때마다 삼촌과 숙모는 웃는다. 그 사건은 가족 농담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부탁하지

않아야 할 때나 억지로 도와 달라고 해야 할 때는 “이미 몸이 젖어서 추울테니까...”라는 말로 요청한다. 그러면 그 일은 항상 기분 좋게 처리된다.

결혼 생활에서 유익하면서도 흥미있는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비결은 살아가는 나날을 느긋하게 즐기기에 충분한 신뢰, 즉 하나님과 배우자와 미래에 대한 신뢰이다. 우리는 신뢰를 통해 시련의 순간에서도 유모어를 찾을 수 있다.

### 영성

결혼 생활이나 가정에서 주님의 영을 원한다면 “그리스도께로 나와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며 경건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부인”(모로나아서 10:32)해야 한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지 않을 말이라면 우리 역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가정에서도 물론 그렇게 해야 한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서로의 관계를 거룩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희생하실 일이라면 우리도 역시 그렇게 해야 하며, 가정에서는 더욱 그렇게 해야 한다. 영성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며, 별의 왕국에 속한 태도를 버릴 수 있을 만큼 해의 왕국의 결혼 관계를 원하는 것이다. 별의 왕국에 속한 태도란 나의 필요 사항, 나의 기쁨, 나의 시간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이기적인 자세이다. 우리 가족은 우리 주변 사람들만큼 훌륭한가? 우리 가정은 충분히 훌륭한 곳인가? 우리 이웃은 우리가 여가를 보내는 방식을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지나치게 염려하는 달의 왕국에 속한 태도 역시 결혼 관계를 해치는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해의 왕국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해의 왕국에 속한 사람처럼 생활할 때 우리의 영이 기뻐한다. 해의 왕국의 원리에 기초를 둔 결혼 생활은 그것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두 사람의 힘이 결합된 것보다 더 큰 힘을 갖는다.

아홉번째 아이를 가졌을 때 나는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들은 아기에게 위험을 주지 않고서는 암세포가 정확히 어느 부위에 있으며, 얼마나 진전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그렇지만 태아는 출산시키도 괜찮을 만큼 충분히 자라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암이 퍼져 나가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었다. 그래서 의사들은 우리에게 자신들이 모험을 감수하고 수술을 해야 할지 아니면 아기가 좀더 충분히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를 결정하도록 요청했다.

내게는 답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살고 싶었으며 나머지 여덟 아이들을 키우고 싶었다. 그러나 또한 배속에 있는 아기도 보호해야 한다고 느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며 여러 주 동안을 고민하였다. 결과적으로 아기에게는 더 자랄 수 있는 시간을 준 셈이다. 많은 기도와 금식 후에 답이 왔다. 남편이 내게 “바바라, 그 일은 잘 될거요. 수술 날짜를 잡았소.”라고 말했다.

남편은 신권의 권세를 통해 그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일보다 더 큰 일을 수행할 수 있었다. 남편은 자신이 직접 암에 걸려 투병했던 우리의 가정 복음 교사와 우리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 아기 모두에게 최선의 상태로 일이 진행되도록 축복해 주었다.

남편은 수술 전날 밤에 나에게 또다시 편지를 썼다. “최근의 나날들은 내 인생의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염려와 자기 성찰의 시간으로 가득 차 있소... 굽이쳐 오르는 신앙과 심연 같은 두려움 사이를 넘나들면서 나는 전에는 결코 필요하다고 생각지 못했던, 내 자신이 정화되는 모습을 경험했소. 당신이 받았던 신권의 축복은 주님에게서 온 것이오. 오늘 밤 당신 병실에 있을 때 나는 당신이 두려움과 신앙 사이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소. 나 역시 집으로 돌아온 후 여러 시간 동안 그런 느낌을 가졌지만, 지금 막 당신이 받았던 축복을 주님이 인봉하셨다는 불타는 확신을 받았소. ...[의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손수 쓰시는 도구로서 그분의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을 할 것이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우리 딸은 그후 7주 뒤에 건강하게 태어나 지금은 열 다섯 살이 되었다.

세상의 무거운 짐과 시련은 계속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편은 지금까지도 결혼식날 했던 약속을 실행하고 있다. 남편은 자신이 옳다고 안 것은 그대로 행하며, 결코 거칠거나 불친절한 적이 없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좀더 효과적으로 행복한 마음을 전하고 감사를 표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배우고 있다.

교회 교육 기구 대표인 제럴드 런드 형제는 병원을 세우기 위해 아프리카 정글로 보급품을 실은 트럭을 타고 가던 의료진 이야기를 하였다. 그들이 가는 곳에 있는 다리들은 모두 그 트럭의 무게를 지탱할 만큼 강하지 못하였다. 그런 다리를 만날 때마다 그들은 귀중한 보급품을 내버려서 무게를 가볍게 하는 대신, 모두 차에서 내려서 차가 지날 수 있을 만큼 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해의 왕국의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도 모든 적재품을 끝까지 가져 가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자녀 문제나 재정적인 책임이나 건강 문제와 같은 무거운 짐들을 던져 버릴 수는 없다. 문제를 해결하는 트럭을 타고 가다가 갈라진 곳에 이르면 때로는 기꺼이 멈춰서서 결혼 생활을 성공시키기 위해 그곳을 보장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사랑은 더욱 커지며 우리는 함께 행복을 찾게 된다. 또한 우리는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구세주께서 우리 가족에 대해 지니신 깊은 관심에 대해 알게 된다.

우리가 만일 성전에서 맺은 결혼 성약에 충실하면 주님은 우리가 “왕위와 왕국과 주권 그리고 여러 권능과 영토와 모든 높임과 깊음을 상속받[으며]... 그곳에 자리를 정하신 여러 천사와 신들 옆을 지나가서... 승영에 이르러 온갖 일에 영광을 누릴”(교리와 성약 132:19)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

남편과 내가 영원히 함께 한다면 우리는 둘 다 완전하게 될 것이다. 현재 내가 노력해야 할 문제는 남편이 그런 영원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자신의 불완전함을 극복하기 위해 끈기있게 노력하고 주님이 남편에게 계속 그가 원하시는 대로 행하도록 영향을 미치시게 하는 것이다. 우리 두 사람은 사랑과 웃음과 영성을 통하여 함께 승영으로 나아갈 것이다. □



# 진정한 사랑과 행복은 무엇인가?



**한** 이름난 잡지에서 다음과 같은 광고를 읽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라뎀은 수천 명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고 있습니다. 작고 가볍고 편리한 방사능 패드를 낮에는 등에 착용하고 밤에는 배 위에 덮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수천 명이 라뎀을 통해...심장과 간장과 신장병을 고쳤다는 편지를 보내 왔습니다.”

여러분은 물론 그것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모든 사람에게 잘 알려진 심리학자가 텔레비전에서 순결과 미덕과 결혼에 대한 예전의 표준이 현재 많은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 표준을 낮추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가지 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잡지에 난 그 광고는 1930년에 등장했던 것입니다. 두번째의 텔레비전 사건은 불과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늘날 정상적인 사람 중에서 그 방사능 광고를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방사능에 관한 법칙과 효능이 과학적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그래서 과학자가 아닌 우리 같은 사람도 그것이 함

부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심리학자가—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주장했던 것은 다른 양상을 보여 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결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는 그럴듯해 보이는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 라뎀 “치료” 광고는 먼저 써보고 돈은 나중에 지불하라고 공개적인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적인 부도덕을 장려하는 주장에서는 “돈은 후에 지불하십시오.”라는 글은 언젠가 밝혀지게 될 경우를 위해 아주 조그만 글씨로 쓰여져 있습니다.

한때는 방사능의 해로운 영향에 대해 몰랐던 적도 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생각이 낮은 우리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곱번째 계명, 즉 혼인 전에 순결을 지키며 결혼 후에도 계속 배우자에게 충실할 것을 명하신 온전한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필요한 만큼은 압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데 따르는 유익은 아주 분명합니다.

1. 여러분은 주님과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





평온하고 온전한 성품을 갖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한다면, 그것을 통해 구애 기간은 물론 결혼 생활과 또 인생의 모든 면에서 커다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선택한 사람을 한 개체로 존중해 줄 것이며, 단순히 육체적 매력과 만족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이 주님의 영을 간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여러분과 주님의 관계가 계속되고 강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에서 주님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간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덕스러우면 여러분의 신임 또한 “주의 면전에서 두터워질”(교리와 성약 121:45) 것입니다. 주님의 면전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현재의 우리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큰 축복입니다. 그러한 기쁨과 단순한 쾌락, 즉 순수한 즐거움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2.** 여러분은 바람직한 자존심을 갖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가치를 깨달음으로써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자로 하여금 형제를 자기 자신처럼 여기게”(교리와 성약 38:24) 해야 합니다.

**3.** 여러분은 경건한 사람일수록 개인적인 특성을 더욱 더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죄는 그 반대 현상을 초래합니다. 죄는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고 습관적인 욕망들 속으로 빠뜨립니다. 이 말일에는 불법이 성하여 사람들의 사랑이 “점차로 식어질”(마태복음 24:12 참조)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충분한 사랑을 찾을 수 없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4.** 여러분은 죄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절망은 죄로 말미암아”(모로나이서 10:22) 생깁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면 자신의 내부로 눈을 돌려 자기 연민에 빠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외부로 눈을 돌려 참된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5.** 여러분은 사회 전반에 걸쳐 넓게 퍼져 있는 해악으로부터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 중 4천 3백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성관계를 통해 전달되는 불치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을 것”이라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테저렛 뉴스, 1991년 10월 7일, A7쪽)

에이즈를 포함한 그러한 질병들은 영적으로는 항상 명백했던 다음 원리를 의학적으로 분명하게 밝혀 줍니다. 즉 육체적인 애정 표현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혼 관계, 그것도 특히 배우자가 모두 항상 계명을 지키는 결혼 관계 안에서만 행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회개는 물론이고 적당히 삼가하는 것보다도 좋습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낫습니다.

**6.** 여러분은 평온하고 온전한 성품을 갖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며, 그것을 통해 구애 기간은 물론 결혼 생활과 또 인생의 모든 면에서 커다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선택한 사람을 한 개체로 존중해 줄 것이며, 단순히 육체적 매력과 만족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계는 영원만큼 깊고 풍부하며 넓게 될 수 있습니다.

순결한 생활을 할 때에 미래의 결혼 생활이나 심판의 날이 아니라 바로 지금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축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순결은 단순히 이를 악물고 금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는 물론 현재도 올바르게 살아감으로써 매일 인도와 새로운 확신과 위안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행복한 마음의 상태 즉, 평화로운 마음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즐겁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물론경에는 한 사회의 구성원이 모두 깨끗하게 생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인간 중에서 이들보다 더 행복한 백성이 없었으니”(니파이사서 1:16)

주님께서 도덕적으로 깨끗해지는 것에 관해 주신 율법을 지키고 그에 따르는 커다란 축복을 누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음 말씀과 제언들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상의 거짓된 주장에 영향을 받지 마십시오.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도 함께 힘을 모으게 될 것입니다.

■ 사람들이 흠 문은 발로 여러분의 집 주변을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들이 흠 문은 발로 여러분의 마음 속을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십시오. 시각적인 것은 물론이고 언어와 같은 것을 통한 모든 형태의 외설적인 것이 뿔어내는 더러움을 피하십시오. 그런 불결한 것으로 감싸인 사람들은 그것들을 깨끗이 씻어내 버릴 때까지는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 순결과 정절의 고리에 여러분 자신의 강한 고리를 연결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 유산을 넘겨 주어서 그들이 그것을 다시 그들의 자녀에게 넘겨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주변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관계없이 계명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 줌으로써 여러





분은 가장 강한 끈으로 서로 단단히 묶게 될 것입니다. 가속력은 운동 경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 간음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십시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시 에스 루이스가 쓴 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기엔 너무나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쁜 영향력에 무한정으로 대항하기엔 충분히 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해로운 상황들이 강한 사람들의 저항조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 예로부터 여성을 유혹하는 이기적인 남성들이 있어 왔던 것처럼, 지금은 남성을 유혹하는 이기적인 여성들도 있습니다. 욕망에 의해 움직이는 그 사람들은 자유롭다는 것에 대해 그릇된 의식을 갖고 있으나, 그것은 단지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 “나를 방해할 자는 없도다.”라고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헛된 생각일 뿐입니다. (모세서 5:33 참조) 사랑은 시험도 정복도 아닙니다. 그런 사랑은 “행복하지 못한 것”(엘마서 41:11)이 될 것입니다.

■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경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표준을 부끄럽게 여기도록 하려 할 때 그러한 조롱과 경멸이 섞인 냉소주의는 무시해야 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의 원수”(야고보서 4:4)입니다.

■ 그릇된 일을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면 여러분의 의지가 그 충동보다 아직 강할 동안에 그것을 저지하십시오. 계속하여 훌륭한 일에 “힘써 노력하”십시오. (교리와 성약 58:27) 사람이 게으르게 되면 세속해서 자기 만족만을 주장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이기심을 불러옵니다.

■ 과오를 저질렀다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회개의 복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진실로 깨끗해지고 고침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영이 부끄러움으로 끓어오르는 일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필요한 단계를 밟을 모든 사람에게는 용서가 남는 기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진실로 행복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절망은 죄로 말미암는”(모로나이서 10:22)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단호하지만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일곱번째 계명을 포함하여 모든 계명들은 좁은 길을 따라 놓인 난간이며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를 고통에서 지켜 줄 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어쨌든 요셉 스미스가 생각했던 것처럼 “행복은 우리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행복의 계획”(엘마서 42:8)으로 불리우는 당연한 이유입니다. □





리그랜드 알 커티스 장로



스펜서 제이 콘디 장로



조셉 시 뮤른 장로

## 유럽 지중해 지역 새로운 도전과 성장

**유**럽 지중해 지역은 그리스도와, 초기에 그분을 따랐던 사람들이 살던 땅 및 많은 서구 문명의 발상지들을 둘러싸고 있다. 그 지역에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교회 잡지에서는 지역 회장단인 칠십인 정원회의 스펜서 제이 콘디 장로와 리그랜드 알 커티스 장로 및 조셉 시 뮤른 장로와 대화를 나누었다.

**질문:** 그토록 다양한 지역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콘디 장로:**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도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헌신적인 지역 회원과 지도자들이 그런 어려움들을 잘 처리하도록 도와 줍니다.

우리 지역에는 35개국에 있는데 서로 뚜렷한 차이를 보여 줍니다. 프랑스의 인구는 5,500만명인데 우리는 그곳에 여섯 개의 스테이크와 여섯 개의 지방부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리이스에는 단지 네 개의 지부만 있는데 인구는 천만 명 이상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이스에 들어간 기간은 비교적 짧은 편입니다.

우리 지역에 속한 나라들은 그 크기가 알제리처럼 미국의 1/4에 달하는 나라도 있는가 하면 솔트레이크 성전의 48

배 정도인 모나코처럼 작은 나라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질문:** 그 지역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까?

**콘디 장로:** 회장단으로서 우리들은 각자 몇 나라씩 분담해서 교회 일을 직접 관리합니다. 우리는 화요일에 지역 사무실에서 함께 만나고, 다른 날에는 선교부를 여행하고 지명받은 지역의 지방부 대회나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하죠. 우리가 다루는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각각 다른 14개국에서 온 회원들로 사무실 역원을 구성했습니다. 그들은 언어면에서 뿐만 아니라 헌신적인 면에 있어서도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질문:** 유럽 지중해 지역에 충실한 회원들이 많이 있다는 믿음으로 들리는군요.

**커티스 장로:** 그렇습니다. 물론 이곳에서도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교회가 더욱 발전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에는 2세대와, 3, 4세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모든 나라에서 선교 사업을 마친 후 귀환하여 지도자로 봉사하고 있는 회원들이 매우 큰 힘을 보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격려





사진 촬영: 리사 예순

하는 많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젊은이들은 이 선교 사업을 통해 훈련을 받고 귀환하여 자신들의 고향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도울 수 있습니다.

**뮤른 장로:** 선교 사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생활을 바치고 희생하지 않고서는 거의 얻을 수 없는 영적인 특성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부름을 수행하는 데 있어 배워야 하는 영적인 특성들도 있습니다. 새로운 신권 지도자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영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믿고 따를 만한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 회원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방법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

**스페인, 세빌리아의 한 말일성도 가족:** 부모인 빅토리아와 하이메와 함께 있는 필리(10), 로리(9), 하이메(6) 로메로 카라스코소

을 합니다.

**질문:** 선교 사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영적인 특성들을 배울 수 있습니까?

**커티스 장로:** 부부 선교사들이 다른 회원들이 보고 따라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배우자 중 어느 한 쪽이나 또는 둘 다 스페인어나 포르투갈어나 프랑스어 또는 이태리어를 할 수 있는 부부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아주 고무적이고 영적인 경험들을 약속할





유럽 지중해 지역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충실한 회원들 가운데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교회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대중 교통편을 이용하여 두 세 시간 동안을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하는 회원들에게서 그런 충실함을 봅니다.

**뮤른 장로:** 회원들이 살고 있는 곳에 교회를 조직하는 것이 거리로 인해 야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우리는 회원들이 모여 사는 가까운 곳에 규모가 작은 지부들을 많이 조직하고 있습니다.

**질문:** 여러분이 회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힘을 키우도록 도와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뮤른 장로:** 그들의 개인적인 신앙이 그 힘의 본질입니다. 각 회원이 스스로 배워야만 하는 몇 가지 영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위한 올바른 풍토를 조성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는 회원들을 개인적으로 격려하고 고무시키며 그들이 복음대로 생활하는 데 따르는 자신의 책임을 깨닫도록 도와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커티스 장로:** 우리는 청소년들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들이 장차 성전 의식을 받고 선교사로 봉사하는 데 도움이 될 활동과 경험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대단한 독창력과 진심으로 헌신하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은 참으로 여러 가지에 관심을 보이며, 여행하는 시간과 경비 때문에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콘디 장로:** 회원들은 종종 서로를 강화시켜 주기도 합니다. 40퍼센트에 달하는 회원들이 독신인데, 많은 회원이 살고 있는 프랑스에는 성공적이고 활발한 독신 성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많이 모여 모임을 갖기도 합니다.

교회 지도자의 방문을 통해 회원들이 얼마나 크게 격려받는지 측량할 수조차 없을 지경입니다. 대관장단의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님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님이 지역 대회를 갖기 위해 스페인을 방문했을 때에는 스페인 전역에서 회원들이 왔습니다. 심지어는 카나리아 제도의 라스 팔마스에서 마흔 명의 회원들이 비행기를 타고 오기도 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엄청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죠.

**질문:** 선교 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쳤겠군요.

**콘디 장로:** 물론이죠! 그리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회원들에게 모든 회원은 선교사라는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의 권고를 기억할 것을 촉구했죠.

서로 다른 지역에서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정계나 실업계의 지도자들이 되면서 교회의 입지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커티스 장로:** 예를 들면, 로마 지방부의 지방부장은 매우 유명한 의사이며 그 자매님도 역시 유명한 의사입니다. 포르투갈의 리스본 스테이크 부장은 연방 판사이며, 파리의 한 스테이크 부장은 국제적인 중요 회계 회사의 회계 담당 중역입니다.

**뮤른 장로:** 복음의 성과 회원들 서로가 느끼는 사랑은 그들의 수에 관계없이 강하죠. 모로코의 한 외진 곳에 사는 회원은 자기 나라에서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한 약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제품을 만드는 약품 회사의 간부인 회원을 모로코의 카사블랑카시에서 찾아냈습니다. 그는 약품이 필요한 회원에게 그것을 보내 주었습니다. 그것은 회원이 회원을 돕는 두 가족의 복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에 회원 수가 많은 적든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는 복음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입니다. □



# 우리의 지역 사회를 향상시킴

**말** 일성도 여성은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를 향상시킬 능력과 기회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가르침대로 살고 우리의 지역 사회를 향상시키기 위해 작은 방법부터 시작함으로써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엘레인 엘 잭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은 “여러분은 남편을 내조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부모님을 돌보고 이웃을 도우며 또 학교에서 봉사하고 지역 사회의 모임에 참여하며 그 외에도 가정 안팎에서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을 수행함으로써 매일 매일 주님께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 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덕 비로 그린

**교회에서 봉사함으로써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함.**

우리는 교회에서 발휘하는 지도력을 통해 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행사를 계획하고 책임을 위임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가족에게 보이는 관심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과거의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우리에게 지역 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것에 대한 풍부한 전통을 남겨 주었습니다.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간호원과 조산원으로 심지어는 의사로서까지도 훈련되었습니다. 그들은 굶주린 자를 구제하기 위해 밀을 구입하고 저축했으며, 씨앗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 건강과 공중 위생을 향상시키기 위해 “파리 박멸”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여성들이 참정권을 얻기 위해 일했습니다. 또한 우리 자매들은 후보로 나서기도 하고 공무원으로도 봉사해 왔습니다.

• 내가 관심을 보임으로써 우리 지역 사회의 어떤 문제가 개선될 수 있는가?

##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음.

오늘날 우리 자매들은 교육과 사회 복지 사업과 정치적인 문제들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조차도 우리 지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스 캐롤라이나의 체펠 힐에 사는 마사 이즈거트 자매는 자신의 여덟 자녀가 각각 속한 반을 도왔습니다. 그녀는 학습 연구 과제를 돕다가 아이들 중 몇 명이 과제를 완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또 다른 아이들은 과제를 끝낸 후 깨끗하게 치우지를 않았습니다. 마사는 그들에게 일을 하도록 가르침으로써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여섯 아들과 두 딸을 데리고 이 일을 했어요. 아이들에게 자질구레한 집안일을 시켰죠. 물론 계획표를 만들어서 일을 하도록 했죠. 아이들이 일을 완수하면 상을 주었으며, 일을 끝낼 때까지는 노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자라서 학교와 직장 및 선교부에서 더 많은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라고 마사는 말했습니다.

마사는 그녀의 학교와 자신이 속한 군과 주 사친회 조직에서 봉사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모가 어떻게 자녀들이 성공하도록 도울 수 있는지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보조 교사로 일하고 있으며 그 직책을 통해 어린이들이 좋은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이들이 준비된 상태로 학교에 오며 자신들의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길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집에서 자녀들의 과제에 관심을 갖고 집과 학교 양쪽의 과제를 완수하도록 격려함으로써 자녀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 이상으로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할 필요는 없지만 항상 문제를 인식하고 도울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역 사회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밖에 나는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



# 히버 제이 그랜트

## 변명을 하지 않는 사람

레온 알 하트슨



어떤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 하지 못한 일에 대해 많은 이유를 대기도 하며, 또 때로는 일하고 싶은 마음조차 없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지 못한 일에 대한 변명을 가족 생활에서 오는 책임 때문이라고 강변하기도 한다. 어떤 이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돕기에는 너무 피곤하다거나, 몸이 아프다고 하거나, 너무 바쁘다거나, 가난하다거나 또는 수줍음을 많이 탄다는 데에서 그 이유를 찾기도 한다.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보다 크고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에만 활용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다.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하는 데서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으며, 사랑과 평화, 그리고 봉사를 끊임없이 입으로만 외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교회의 제 7대 대관장이었던 히버 제이 그랜트는 이와는 정반대되는 사람이었다. 히버 제이 그랜트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한 훌륭한 동기만 있

으면 곧 그 일을 시작하였다. 일이 쉽지 않더라도 그는 열심히 일하여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냈으며, 일이 불가능해 보이는 경우에도 열의를 가지고 문제를 극복하면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갔다. 어떤 일을 행하는 데 필요한 천부적 재능이 없는 경우에도 그는 기술을 습득할 때까지 꾸준히 연습을 하고 기도했다.

### 자기 수련의 가치

히버 제이 그랜트는 재정적 파탄에서 교회를 구하는 일이건 또는 찬송가를 악보에 따라 정확하게 부르는 일이건 매사에 변명할 줄을 모르는 분이였다. 변명은 그가 받은 교육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브리감 영 대관장(어린 시절 히버는 영 대관장의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과 라헬 어빈

스(히버의 어머니) 두 분은 모두 한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는데 그것은 두 분 모두 자기 수련이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신 분들이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스스로에게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어린 히버는 이러한 성품을 이어받아 이를 자신의 것으로 발전시켰던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만 있다면 자신이 하기로 마음먹은 일을 달성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믿는 가운데 성장하였으며, 종종 다음과 같은 랄프 왈도 에머슨의 글을 인용하곤 하였다. “어떤 일이건 끈질기게 시도하면 나중에는 점차 쉬워지는데 이는 일 자체의 본질이 변하기 때문이 아니라 일을 하는 우리의 능력이 커지기 때문

선교 여행 중이었던 젊은 사도 히버 제이 그랜트는 “마치 천국 회의를 보는 것 같았”는데, 그 회의에서 자신을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부르는 것을 확인했다.







이다.”(1901년 4월 연차 대회 보고, 63 쪽) 히버 제이 그랜트는 자신이 가르친 바를 그대로 실천하였다.

그는 오랫동안 야구공 던지기 연습을 하여 실력이 가장 뛰어난 팀에 들어가 경기를 할 수 있었던 경험과 자기의 글씨체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뛰어난 글씨체를 갖게 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즐겨 들려주곤 하였는데, 그는 후일 명필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그는 또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아주 훌륭한 예배 방법이라고 찬사를 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찬송가를 배우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많은 찬송가를 암기하여 비록 음악에 대한 천부적인 재능이 있진 않았지만 정확한 음정을 낼 수 있게 되었다.

그는 회원들에게 부지런하게 생활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을 발전시키도록 격려하는 말씀을 자주 했으며, 모든 사람에게 선행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는 이생의 삶을 지을 건축가일 뿐만 아니라 다가올 영원의 삶까지도 짓는 건축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우리에게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계발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 근면의 중요성

히버 제이 그랜트는 1856년 11월 22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제이다리아 엠

그랜트와 라헬 어빈스 사이에서 태어났다. 브리감 영 대관장의 보좌였으며 솔트레이크시티의 초대 시장이었던 그의 부친은 히버가 아홉 살 때에 돌아가셨다. 대관장단의 한 분은 미망인이 된 그랜트 자매에게 히버가 성장하여 아버지보다 더욱 중요한 일을 수행하는 사도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리하여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장차 이 축복을 이룰 수 있도록 합당하게 준비시키기 위해 올바르게 행동하고 순종할 것을 꾸준히 권고하였다.

히버는 어려서부터 근면의 중요성을 배웠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히버와 그의 어머니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어 결국에는 그들이 살던 아름다운 집을 떠나 작고 누추한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교회에서 주는 재정적인 도움을 거절한 그랜트 자매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재봉 일을 하였다. 어린 히버는 심부름을 하거나 어머니가 피로할 때 재봉틀의 발판을 밝아드리는 일을 하여 어머니를 도왔다.

훗날 히버는 보험 회사에서 서류를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되었으며, 일을 배우고자 하는 열의와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의 결과로 그는 겨우 34세의 나이로 유타주 은행의 총재가 되었다. 사업가로서, 히버 제이 그랜트는 교회 회원이나 비회원 모두에게 양심적이고 정직한 사람으로 존경을 받았다. 평생에 걸쳐 그는 많은 사업체를 설립하여 부자가 되었다.

### 아낌없이 주는 사람

그러나 히버는 재물에 눈이 어두워진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이용하였으며, 또한 교회와 지역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하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자신과 어머니가 겪었던 어려움을 기억하고 있던 히버는 미망인 가족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었으며, 또한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였다. 그는 많은 사업체를 설립하여 많은 이들에게 일자리를 주었으며 지역 사회를 경제적, 문화적으로 윤택하게 만드는 데 일조를 하였다. 교회의 대관장으로서 그는 교회 안전 계획(후일 교회 복지 프로그램의 모태가 됨)을 만들었으며, 또한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기증하였다.

이웃에 대한 사랑과 주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신앙으로 인해 히버는 정말 많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청년 시절에 한 교회 모임에 참석한 히버는 기부금을 호소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모임이 끝난 후 히버는 감독님에게 50달러를 주었으나 감독은 히버에게 45달러를 돌려 주었는데 감독은 5달러가 히버의 몫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히버는 45달러를 감독님에게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울리 감독님, 감독님께서서는 방금 전에 주님께 서 네 배로 갚아 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저의 어머니는 미망인이신데 지금 그분은 이백 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러자 감독이 말했다. “형제님, 형제님께서서는 내가 이 나머지 45달러를 받는다면 이백 달러





1901년 8월 그랜트 장로는 동경에 본부를 둔 일본 선교부를 개설하여 이를 관리하였다. 1902년 3월에 그는 동경만에서 히지메 나가자와라는 첫번째 일본인 개종자에게 침례를 주었다.

가 곧 생길 것이라고 믿습니까? 히버는 “확실히 믿습니다, 감독님.”하고 대답했다. 모임 장소에서 걸어 나오면서 문득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어 히버는 잘 알지도 못하는 어떤 사람에게 사업상 거래를 하겠다는 전보를 보냈다. 그 결과 히버는 218달러 50센트의 이익을 보게 되었다. 다음 날 히버는 감독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다. “감독님, 저는 요전 날 감독님에게 50달러를 기부한 후에 사업상 거래에서 218달러 50센트를 벌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백 달러를 빼면 18달러 50센트가 남는데 이 돈으로 이제 십일조로 21달러 85센트를 지불하게 되면 돈이 모자라

는데 아마 주님께서서는 제게 주신 ‘네 배’의 수입에 덧붙여 십일조를 낼 만한 충분한 돈까지 주시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 언어가 아니라 영으로.

히버 제이 그랜트는 비록 자신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했지만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을 비판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의 청년 시절 어느 날, 교회 모임에서 연사 한 분이 말씀 서두에서 문법적인 오류를 범하였다. 히버는 전에 학교에서 교정이 필요한 문법적인 오류의 예를 조사하는 과제를 해본 적

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실수를 범하였다고 확신을 하였다. 말씀 내용을 적으면서 히버는 연사가 범하는 실수를 듣고 있으면서도 그 연사가 말하는 내용에서 주님의 영을 느끼기 시작하였으며, 급기야는 구세주의 신성과 요셉 스미스의 사명, 그리고 주님의 사업에 대한 간증을 들을 때에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훗날 그랜트 대관장은 이렇게 말했다. “그 이후로 여러 해가 지나는 동안 저는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행하는 문법적인 실수나 잘못된 말에 대해 충격을 받거나 화를 낸 적이 결코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언어를 통해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오늘까지 다른 무엇보다도 저에게 감명을 준 것은 사람의 언어가 아닌 영, 곧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지니게 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감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언어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부터 이날까지 저는 사람들이 지닌 영으로 그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였으며 그 일은 성공적이었습니다.”

### “간구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

히버 제이 그랜트가 인간적으로 성숙해지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의 신앙도 성숙해졌습니다. 첫번째 아내였던 루시 스트링햄 자매가 몹시 아파 누워 있을 때, 그는 자녀들을 불러 모아 병



실로 데리고 들어가 아이들에게 어머니가 곧 돌아가실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그의 딸 루티가 아버지에게 매달리며 어머니를 위해 그의 신권을 행사하여 어머니를 죽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청했다. 아이들이 병실을 떠나자 그랜트 장로는 아내의 침상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때 드린 기도에 관해 훗날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주님께서 삶과 죽음, 기쁨과 슬픔, 그리고 번영과 패망,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제가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내의 죽음이 임박한 것에 대해 불평하지는 않았으나, 당시에 아내의 죽음을 지켜 보기에는 힘이 약했으며 또한 자녀들에게 복음의 의식에 대한 신앙을 갖게 하는 힘이 부족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저의 딸 루티에게 어머니가 죽어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간증을 주실 것을 주님께 간구드렸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아내는 숨을 거두었으며, 저는 아이들을 병실로 불러 어머니가 죽었다는 것을 알려 주었습니다. 어린 아들 히버는 엉엉 울기 시작했으며, 루티는 우는 히버를 팔로 껴안고 위로하며 울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에 다음과 같은 주님의 음성이 루티에게 들렸습니다. ‘너의 어머니의 죽음은 나의 뜻이니라’ 루티는 저의 기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시현은 제가 주님께 한 간구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이었으며, 이것에 대해 저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히버 제이 그랜트는 평생을 가족과

가까이 지냈다. 그가 살던 시대는 교회 복수 결혼을 하던 시절이어서 그도 루시 외에 홀다 오거스타 윈더스 자매와 에밀리 웰즈 자매를 아내로 맞아 모두 12명의 자녀를 낳았다. 집을 멀리 떠나 살고 있는 그의 한 딸은 이렇게 회상하였다. “아버님은 편지를 굉장히 많이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만일 제가 아버님께서 제 편지에 답장을 쓰시든 만큼 빨리 아버님 편지에 답장을 했더라면 일 주일에 두 번씩은 편지를 주고 받았을 것입니다. ...아버님 편지의 첫머리는 다음과 같이 항상 똑같았습니다. ‘지금 새벽 두 시(때때로 세 시)이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어 사랑하는 딸에게 짧게나마 편지를 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아버님의 그런 편지가 얼마나 그리워지는지를 정말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 주님의 손길

히버 제이 그랜트는 스물 세 살에 스테이크 부장이 되었으며, 스물 다섯 살에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이 되었다. 그리고 일 년 후에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 선교 사업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귀환하자 그는 자신의 사업적 재능을 이용하여 1890년대에 미국을 휩쓸었던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교회가 재정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으나, 자신은 정작 많은 재산을 잃었다.

1901년에 그는 일본에 선교부를 개설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부름을 받아

일 년 동안 이를 준비하고 출발 전에 개인적인 일들을 정리하라는 임무를 받았다. 그 당시에 히버는 그가 입었던 재정적 어려움을 회복하고 있던 중이었다. 부름을 받았던 모임이 끝난 후 사도 한 분이 교회 대관장께서 그랜트 장로가 겪고 있는 재정적인 상황을 알고 계셨다면 결코 그러한 임무를 주시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에게 말했다. 이런 말에 그랜트 장로도 같은 생각이었다. 바로 그 순간에 그랜트 장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다. 매일 아침 그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였다. “오늘도 제가 저의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 주소서.” 이리하여 그는 일 년 동안 자신의 모든 채무를 갚았다. 그랜트 장로는 자신의 채무를 정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교 사업에 필요한 기금도 마련하였다.

이 년 후에 귀환하자마자 그는 유럽 선교부장으로 이 년을 더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훗날 그는 현재 교회 잡지의 전신인 **임프르브먼트** 이라 발간 작업을 도와 주기도 하였다.

히버 제이 그랜트는 1918년 육십 이 세에 교회 대관장으로 부름받아 거의 이십 칠 년을 봉사하였다. 그는 교회 대관장으로서 두번째로 긴 세월동안 봉사하였던 것이다. 대관장으로 봉사하는 동안 커다란 능력과 두려움 없는 지도력이 요구되었다. 당시 교회 회원들에게는 두 번의 세계 대전과 (1929년과 1930년대에 있었던) 미국 경제 대공황 및 전세계적인 교회의 성장기를 통





그랜트 대관장은 새로운 과학 기술을 복음 전파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1922년 5월 그는 교회의 첫번째 라디오 방송국을 헌납하였다. 이 년 후 그는 솔트레이크 태버내클에서 사상 처음으로 라디오 중계 방송된 연차 대회에서 첫번째 연사로 말씀을 하였다.

하여 그들을 이끌고 강화시켜 줄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했다. 그랜트 대관장은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생활할 것과 근면과 사랑, 그리고 서로에게 봉사할 것과 정직하게 십일조를 내는 것, 지혜의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할 것 등을 가르쳤다. 또한 그는 세미나리와 신학 연구원 프로그램을 실시했으며, 교회 복지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회원들에게 자립심과 가족 및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에 관하여 가르쳤다.

한편 그랜트 대관장은 비회원들에게 교회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많은 일을 하였다. 그는 1922년 교회가 첫번째로 방

송하는 라디오 방송에서 말씀을 하였으며, 1930년에 교회 설립 100주년 기념 행사를 감독하였다. 그리고 1937년에는 유럽으로 여행하여(예언자로 봉사하는 동안 유럽을 여행한 두번째 교회 대관장이었음) 영국에 교회가 소개된 지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그는 태버내클 합창단이 국가 규모의 합창 공연을 하도록 추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는 정부와 시민 단체 및 전문 직업 단체와 자주 대화를 나누어 교회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바꾸는 데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그는 교회를 위해 외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며 많은 친구

를 만들 수가 있었다.

### “합당하게 서다”

히버 제이 그랜트는 평생 동안 자신이 지닌 힘의 근원은 바로 주님이라고 생각하였다. 25세에 사도가 된 그는 그 부름에 대한 자신이 그 직책에 합당하지 못하며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생각으로 네 달 동안 심한 괴로움을 느꼈다. 그러나 애리조나에 있는 나바호 인디언 보호 구역으로 가는 선교 여행 도중 이 젊은 사도는 자신의 의심을 영원히 잠재우게 한 결코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였다.

그는 훗날 혼자서 말을 타고 가던 당시의 일을 이렇게 회상하였다. “저의 생애 동안 어떤 것을 것처럼 생생하게 보고 들은 적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아마 천국 회의를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하는 소리도 들은 것 같습니다. 저는 큰 관심을 갖고 토론을 들었습니다. ...이 회의에는 구세주가 참석하셨고 저의 아버지도 계셨으며 예언자 요셉 스미스도 계셨습니다.” 젊은 히버는 회의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결원을 채워야 할 필요성에 대해 토론을 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이렇게 덧붙여 말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저의 아버지가 저를 거론하여 그 자리에 부르게 되었음을 알려 주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깨끗하고 흠없는 생활을 해 왔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제가 그 승영된 자리에 앉을 만한 일인 것이 없었습니다. 예언자 요셉과



아버지는 제가 그 자리에 앉기를 원하였습니다. 제가 부름을 받게 된 것은 제가 무슨 위인이거나 어떤 큰 일을 성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성실히 노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언자와 부친은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으며 그 날부터는 제가 성공하건 실패하건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

“그날부터 저는 제가 사도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괴로움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려준 말로 인해 저는 더 이상 근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랜트 장로는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의 뒤를 이어 교회 대관장이 되었다.] ‘주님께서 형제님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형제님에게 큰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사업이 아니라 주님의 사업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어떤 인간보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누가 이 교회를 인도하면 좋을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코 실수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대회 보고, 1941년 4월, 4~5쪽)

히버 제이 그랜트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 그는 노력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많은 것을 배운 후에는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커다란 신앙을 지니고 있었으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변명없이 항상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었다. □

## 히버 제이 그랜트 약력, 1856~1945

연도	나이	일어난 일
1856년		11월 22일 :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태어났음. 아홉 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심.
1871년	15세	은행 서기로 채용되어 사업 경력을 쌓기 시작.
1875년	19세	제1와드 청남 상호향사회 보좌가 됨. (이 조직이 훗날 청남 조직으로 발전함)
1877년	20세	11월 1일 : 루시 스트링햄과 결혼.
1880년	23세	유타주 틀레 스테이크 부장이 됨.
1882년	25세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성임됨.
1883~84년	26~28세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 선교 사업을 행함.
1897년	41세	본부 청남 상호향사회 회장단의 일원이 됨. 창간에 일조를 담당했던 임프르브먼트 이라의 사업 책임자가 됨.
1901~03년	45~47세	일본 선교부를 조직하여 관리함.
1903~05년	47~50세	유럽 선교부장으로 봉사함.
1918년	62세	교회 대관장이 됨.
1919년	63세	하와이 성전 헌납. 교회 회원 수가 오십만 명에 달함.
1923년	67세	캐나다 앨버타 성전 헌납. 사상 처음으로 라디오로 중계된 연차 대회에서 말씀함.
1927년	71세	애리조나 성전 헌납.
1936년	80세	교회 복지 계획을 수립함.
1937년	81세	유럽의 성도들과 선교사들을 방문함.
1945년	88세	5월 14일 :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별세.

### 참고 서적

1. 브라이언 에스 힝클리, *히버 제이 그랜트 : 위대한 지도자의 생애와 주요 사건*,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렛 출판사, 1951년.
2. 프랜시스 엠 기본즈, *히버 제이 그랜트 : 강철 같은 하나님의 예언자*,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렛 출판사, 1979년.
3. 로널드 더블류 워커, *교회 대관장, "히버 제이 그랜트" 편*, 레오나드 애링턴 편집,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렛 출판사, 1986년.
4. "히버 제이 그랜트" *몰몬 백과 사전*, 뉴욕 맥밀란 출판사, 1992년, 564~568쪽.





사진 촬영 : 크레이그 다이먼드

# 물몬경과 나

조지 딕슨

**어**느 한 여름 밤 나는 나와 가장 친한 친구인 테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테리는 나보다 나이가 조금 많기 때문에 먼저 선교 사업을 나갈 계획을 갖고 있었다. 테리가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 내가 벌써 선교 사업을 나갈 나이가 됐으니 말이야.”라고 말하며 선교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 머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다.

나는 항상 활동적인 교회 회원이었으며, 매사에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너 스스로는 네가 훌륭한 회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지. 그러나 네 간증이 얼마나 강한가를 한번 생각해 봐.”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지? 나는 물몬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자면 조용한 장소가 필요했다. 그러나 나는 동생이 다섯이나 있었으며, 더구나 만이었다. 조그마한 우리집과 마당은 항상 시끌벅적했으며, 주위에 요셉 스미스가 첫번째 시현을 받았던 숲처럼 한적한 숲도 없었다. 내가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혼자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장소를 찾는 일이었다.

몇 년 전에 아버지께서는 우리집의 많은 식구들을 태울 수 있는 좌석이 많이 달린 차를 구입한 적이 있었는데 중고 차이긴 했으나 상당히 좋은 차였다. 우리는 얼마간 차를 사용하지 않고 집 뒤쪽에 있는 농구대 아래에 주차시켜 놓았다. 나는 그 차 안이 방해받지 않고 조용하게 물몬경을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고 생각했다.

물몬경의 어떤 부분을 읽을 때 그런 좋은 느낌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내 뺨 위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 내리는 벅찬 감정을 느꼈었다. 내가 그러한 감정을 느낀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예전 같으면 책을 읽으며 눈물을 흘리는 내 자신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나는 말할 수 없는 평화와 확신을 느꼈으며,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에게서는 의심할 것이 없었다. 나는 물몬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내가 선교 사업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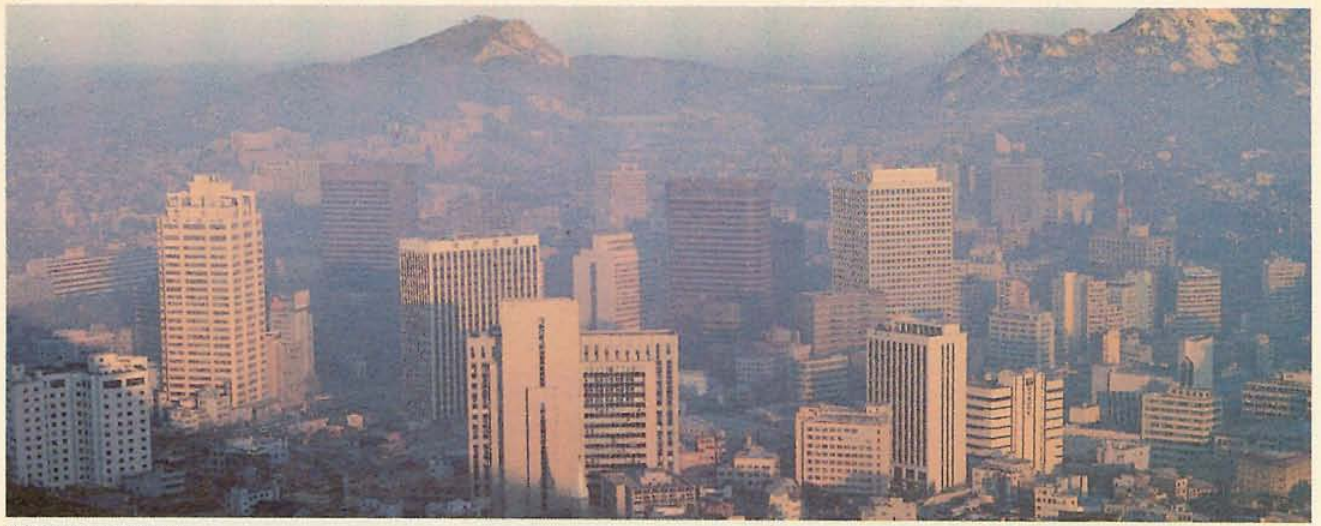


사진 촬영 : FPG INTERNATIONAL

## 조용한 아침의 나라

# 대한민국

복음 안에서 봉사하는 것과 전통적 가치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말일성도들은 영적인 평화를 찾고 있다.

켈린 릭스 아담스

**찬**란한 보라색과 청색과 빨간색이 조화를 이룬 이 나라의 꽃인 무궁화가 그 이름처럼 서울 중심가의 콘크리트 틈새를 뚫고 나와서 피어 있으며, 한국 어디를 가도 푸르른 산을 더욱 아름답게 수놓은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무궁화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영원한 꽃”이다. 생명력이 매우 강한 이 식물은 한 꽃잎이 시들면 새로운 꽃이 계속해서 피어나 거의 일년 내내 꽃을 피우고 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무궁화가 지니고 있는 끈끈한 생명력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그 꽃과 같이 질긴 생명력을 보여 준 조상들의 역사를 줄줄 외우고 다닐 정도이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땅과 믿음을 수호해 왔으며, 또한 여러 시대에 걸쳐 그들을 지배하기도 했던 주변 국가들과는 달리 독특한 국가적 특징을 확립하며 살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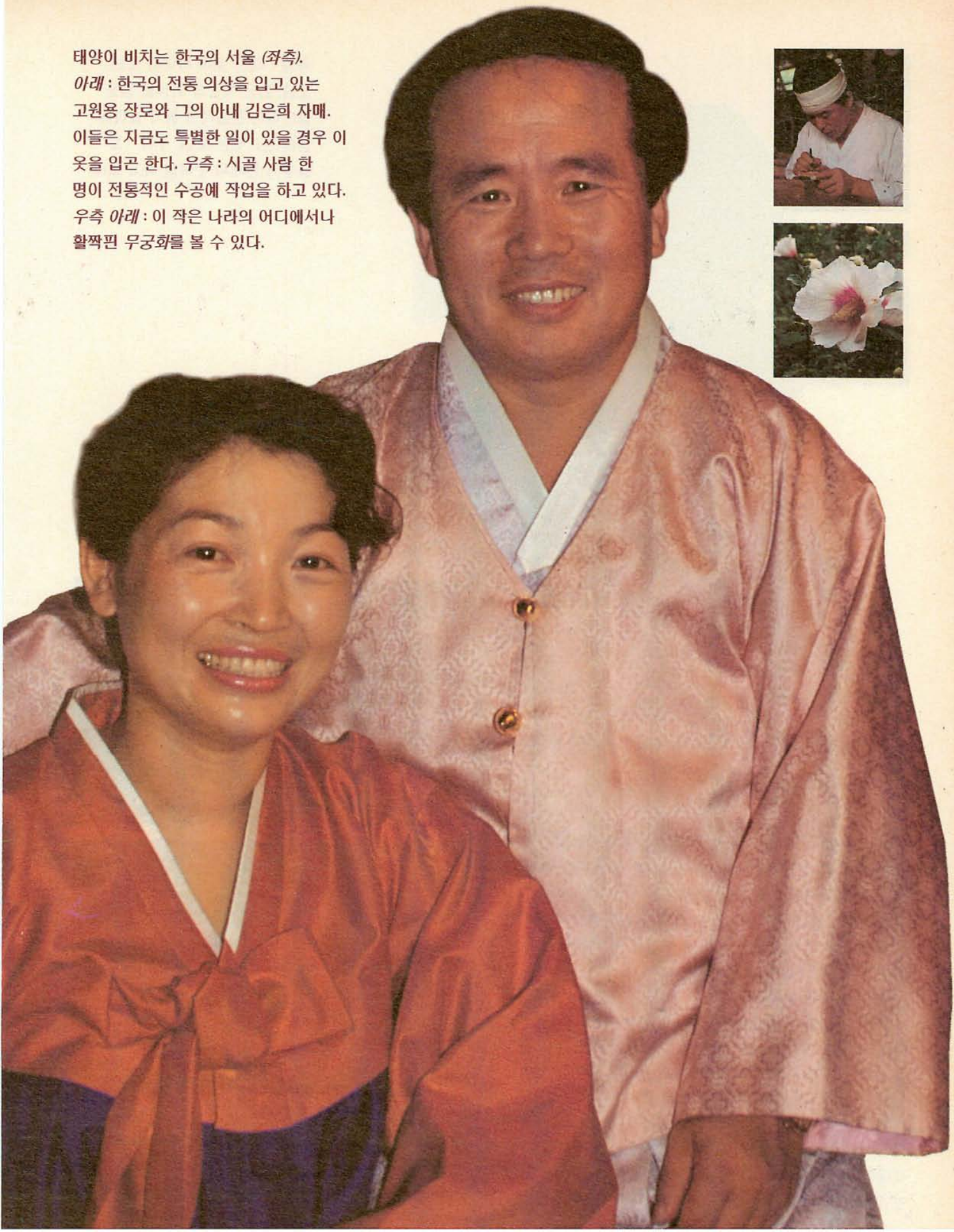
올해 사십 세로 세 아이의 어머니이며 강한 신앙을 지닌 교회 회원인 최미영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청소년 시절에 조상에 대해 배웠습니다. 또한 충성과 결연한 마음 자세에 대해서도 배웠으며, 우리 자신과 우리가 지닌 것들에 대해 긍지를 가져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러한 결연한 마음 자세는 기름진 한국이라는 토양에서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1950년대 초에 한국 전쟁에 참전하였던 말일성도 군인들이 초기 한국인 개종자들에게 침례를 준 이후 오늘날 한국에는 교회 회원 수가 거의 육만 명에



태양이 비치는 한국의 서울 (좌측).

아래: 한국의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  
고원용 장로와 그의 아내 김은희 자매.  
이들은 지금도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 이  
옷을 입곤 한다. 우측: 시골 사람 한  
명이 전통적인 수공예 작업을 하고 있다.  
우측 아래: 이 작은 나라의 어디에서나  
활짝핀 무궁화를 볼 수 있다.





좌측 : 어린 꼬마 아이의 웃는 모습, 밝은 색상의 의상을 입은 젊은이가 전통적인 농악 놀이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우측 : 두 농부가 논에서 수확을 하고 있다.



• 서울

대한민국

• 광주

• 부산

이르고 있으며 16개의 스테이크에 하나의 성전이 있다.

**복음과 전통 가치의 조화.**

한국에서는 기독교가 전혀 새로운 종교는 아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종교는 여전히 불교이기는 하지만 한국에 살고 있는 사천이백만 인구의 삼분의 일 이상이 자신들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수십 년간에 걸쳐 커다란 혼란을 경험한 이 나라에서 말일 성도가 된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다.

이 점에 대해 최 자매는 “지난 몇 년간 정치적, 경제적으로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다.”라고 말한다. 수 백년 전만 해도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별명을 지니고 있었던 한국은 급속한 현대적 발전과 오랫동안 형성된 전통을 자연스럽게 조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최 자매와 남편인 최석구 형제는 복음이라는 굳건한 반석 위에서 자신들의 자녀를 키우기로 결심한 말일성도 일세대의 전형적인 예로서 한국에는 이와 비슷한 가정이 많이 있다. 최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함께 경전을



맨위쪽 : 조중현 형제와 귀환 선교사인 그의 아내 이현아 자매는 가족과 함께 순천에서 살고 있다.

위쪽 : 세미나리에 참석한 학생들이 경전을 공부하고 있다.





읽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우리가 지닌 이상과 우선 순위를 보여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아이들이 모범을 통해 배울 수 있고 그 속에서 평화와 안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아이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알아 인생에서 겪는 문제들의 해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알게 하고 싶습니다.”

심장병 전문의인 최 형제는 일 주일에 육일 동안 매일 아침 여섯 시에 집을 떠나 종종 저녁 아홉 시나 열 시에 집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최 형제만 이처럼 많은 시간을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가 다르게 급속히 변화하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한국의 사업 및 기술계에 종사하는 다른 많은 사람의 경우도 처지는 비슷하다. 그러나 최 형제의 경우 가정의 밤이 있는 월요일과 한국 서울 성전의 봉사자로서 해야 할 일이 있는 목요일에는 다른 날보다 조금 일찍 귀가를 한다.

“우리는 가족과 교회를 위해 기꺼이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위해 희생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는 평화를 얻고 있습니다.”라고 최 형제는 말한다.

### 영원한 가치를 지키며

혼잡하고 현대적인 대도시에 살거나, 또는 조용한 시골

에 살거나 교회 회원들은 복음 안에서 평화와 인도를 얻고 있다. 한반도의 동남쪽에 위치한 양산 마을에 사는 전영준 형제와 임인숙 자매는 최 형제의 경우와 사는 환경은 다르나 똑같은 가치관과 원리 속에서 그들의 네 아들을 키워 왔다. 원래 부산에 살았던 그들은 그 마을로 이사한 후에 가족이 더욱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다. 임 자매는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 형제는 작가로서 일하고 있다. (한국 여성들은 결혼 후에도 결혼 전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다.)

전 형제 가족은 최근에 자신들에게 새로운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 형제는 한국어판 교회 잡지인 성도의 벗에 게재된 내용 중 자녀들에게 읽어 준 적이 있는 이야기로 최근에 전국적인 규모의 이야기 낭송 대회에서 상을 탔다. 전 형제와 그의 아내는 오후 시간의 많은 부분을 분장과 복장을 완전히 갖추고 성장기에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도덕적 교훈이 담겨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보내고 있다.

상을 탄 후 전 형제 가족은 언론 매체들로부터 커다란 관심을 끌었다. 많은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신문 기사에 전 형제 가족의 이야기가 나왔으며, 거의 모든 기사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었던 사항은 그 가족이 지니고 있는 일체감과 이상을 향한 마음가짐이었다. 이에 대해 임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 가족을 방문한 사람들은 대체로 이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지만 우리는 복음 원리에 따라 살고 있



을 뿐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에는 전 형제 가족과 같은 가족간의 유대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한국의 문화는 가족적인 전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발전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한국도 사업적 그리고 경제적인 관심이 영원한 가치들에 우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광주 풍향 워드 감독으로 봉사하고 있는 조용현 형제의 경우도 복음 원리에 따라 살겠다는 확고한 결심이 경쟁이 우선하는 사업 세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조 감독은 한국에서 가장 큰 석유 회사의 화학 공학과 관련된 촉망받는 직책에 응시를 하였다. 채용 과정의 일환으로 그는 회사의 중역들과 면접을 하게 되었다. 그때의 상황을 조 감독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회사 중역들이 제 앞에 앉아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질문 중의 하나가 가족과 회사 일 가운데 어떤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는가였다. “저는 중역들이 제가 회사 일이 먼저라고 딱잘라 말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망설이지 않고 어떠한 성공도 가정에서의 실패를 보상할 수 없다고 말하였는데 이 대답이 그들을 놀라게 하고 감명을 준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저는 예언자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조 감독은 채용이 되었으나 다섯 달 후에 교회 교육 기구에서 가르쳐 보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받았다. 봉급이 석유 회사의 삼분의 이밖에 되지 않았으나 조 감독은 그 제의를 받아들여 지금은 그가 자라난 고장, 한국의 서남쪽에 위치한 광주의 신학 연구원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

조 감독은 그가 걸어온 길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한다. “어릴 적부터 저는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만 수학이나 과학 또는 역사를 가르치는 일에는 흥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가르치고 싶었는데 지금 저는 그러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 감독이 가르치는 일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한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많은 세미나리 수업과 대학부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젊은 학생들이 포함되



**맨위쪽:** 부모와 자리를 같이 한 서진우 형제는 교회 회원들이 보여 준 사랑과 신앙으로 오늘도 교회에서 힘차게 활동하고 있다. **위쪽:** 한국 서울 성전 경내의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어 있다. 교회의 지역 지도자들이 오늘의 젊은이들이 내일의 지도자들이라는 사실과 젊은이들이 스스로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에 따라 세미나리와 대학부 프로그램은 한국에서 점차 커다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서울 서초 워드 회원인 이경희 자매는 세미나리 새벽반에서 가르치고 있다. 귀환 선교사인 그녀는 어린 시절에 복음 안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 자매는 이렇게 설명한다. “저는 어린 학생들에게서 도리어 배우고 있습니다. 수업을 준비하고 공부하는 가운데 저는 복음의 세세한 면들을 배우고 있으며 저의 간증을 더욱 크게 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리를 가르침으로써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간증과 저의 생활, 그리고 저의 경험을 학생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봉사하는 한 그분께서는 저를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자매가 가르치고 있는 새벽반 세미나리에서는 학생들이 경전의 가르침을 자신들의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방법



을 배우고 있다. “저는 엘마와 모사이아의 아들들이 행했던 선교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즐겨 읽습니다. 그들의 모범과 용기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난생 처음으로 저의 친구와 저의 믿을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고 있으나 경전을 읽을 때나 모임에 참석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때에 주님께에서 힘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라고 한 학생은 말한다.

한국은 교육열이 대단히 높은 나라이다. 국민학교나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상급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한 시험 준비를 시키고 있다. 하루에 열 시간 내지 열 두 시간을 수업에 참석하고 공부를 하는데 쓰는 것 짬은 한국에서는 흔한 일에 속한다. 학생이 공부 외의 일이나 신앙 활동에 시간을 사용하는 경우 심한 갈등이 야기될 수도 있는데 만일 그 학생이 가족 중에서 유일한 교회 회원일 때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

### 순종에서 오는 축복

부산의 한 어린 회원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익숙해져 있다. 어머니가 교회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시키자 그 학생은 언젠가 어머니도 마음을 바꿀 것이라고 믿으며 충실하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경전을 읽었다.

“저는 제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순종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다한다면 주님께서 저에게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라고 그 학생은 간단 명료하게 말한다.

서울 신당 와드의 한상익 형제는 그 자신이 순종의 결과로 풍성한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비록 그의 삶이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한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지금 제가 전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학창 시절에 연기도 하고 강단에 서겠다는 커다란 소망을 지닌 연극영화과 학생이었던 한 형제는 서울의 한 신학 연구원의 학생 회장으로 선출되었는데 당시의 일을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모든 전임 회장들이 선교사로 봉사를 했었습니다. 저 자신도 제가 선교사로 봉사할 것인지 아닌지를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열일곱 살에 침례를 받아 가족 가운데 유일한 교회 회원이었던 한 형제는 가족 가운데 자신이 해야 할 책임으로 인

해 갈등을 겪었다. 그의 부친은 세상에 계시지 않았으며 장남으로서 어머니를 부양해야만 하였다. “어머니는 제가 졸업을 하고 결혼을 하여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을 학수고 대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랜 시간 동안 확립된 이 사회의 전형적인 인생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형제는 그 길을 택하는 대신 졸업을 하고 어머니를 돌보아 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고 스물 여섯이라는 나이에 복음 선교사로 출발하였다. “물론 그같은 결정은 옳은 것이었습니다.”라고 그는 결론적으로 말한다. “저의 어머니도 축복을 받았으며 저도 의로운 결정의 본보기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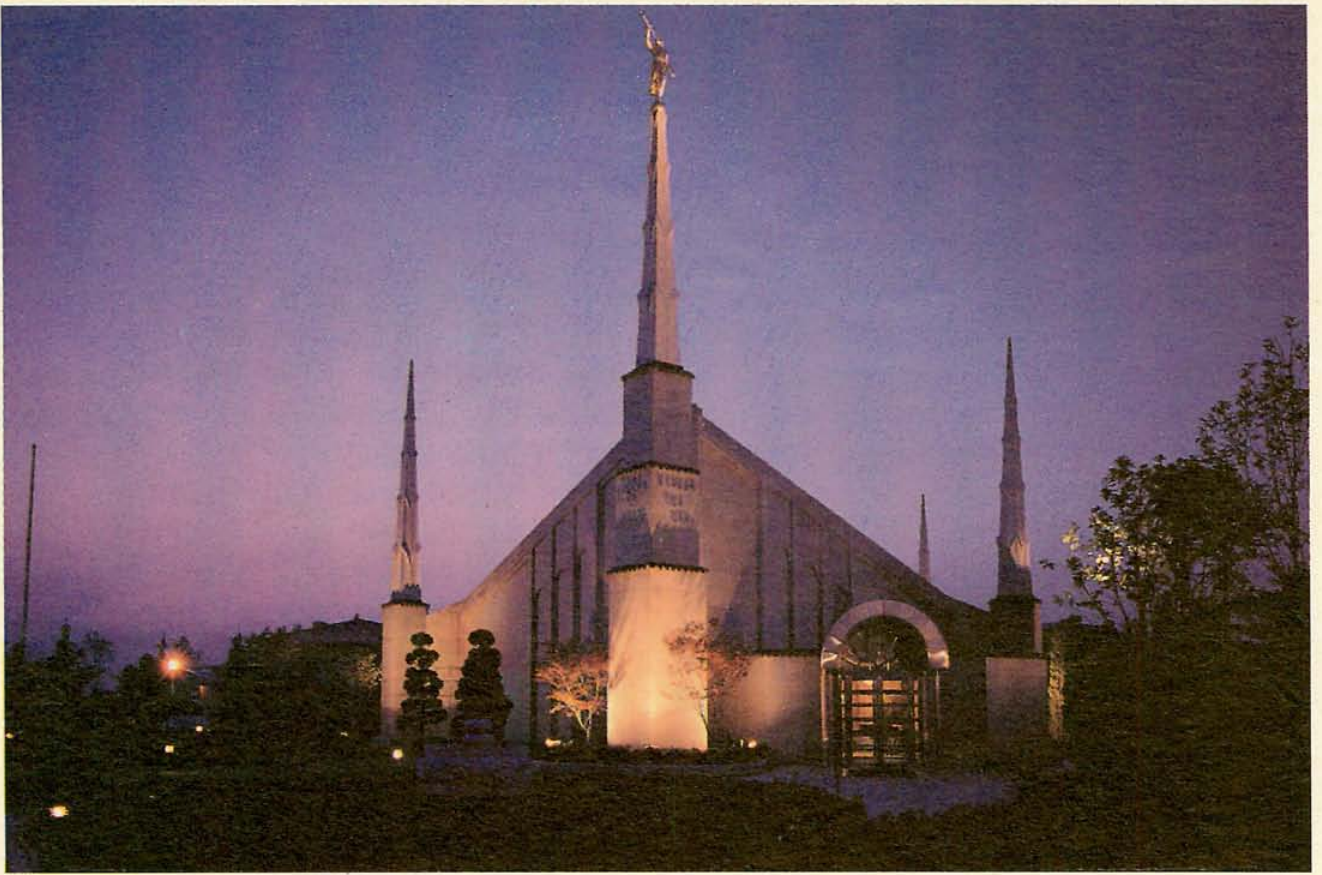
한 형제가 물몬경에 대해 소중한 교훈을 배운 시기는 그의 선교 사업 기간이었다. “선교사인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물몬경과 요셉 스미스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며, 그것보다는 구도자들이 복음 원리를 점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보다 쉽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한 형제는 말한다.

그러나 그는 곧 구도자들이 보인 반응이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자 적지 않게 당황하게 되었다.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한 후에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라고 한 형제는 말한다. “처음부터 물몬경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이들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영의 힘에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사실이 저를 놀라게 하기는 했지만 제가 순종하였을 때 사람들은 제가 그들에게는 다소 어렵다고 생각했었던 복음 원리와 이상을 받아들였습니다.”

전세계 어디를 가도 이십 육 세나 되는 복음 선교사를 찾아보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도 한국인 선교사 중에는 그 나이에 이른 사람이 많이 있다. 이년 반 동안의 군복무와 엄격한 교육 제도로 인해 한국의 교회 형제들은 종종 군복무와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선교사로 봉사하기도 한다. 이제 한국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이 예전보다는 흔한 일이 되어 현재 한국에 있는 네 개의 선교부에 있는 선교사들 중 이십오 퍼센트 이상이 한국인 선교사이다.

한국인 선교사에게서 복음을 배우는 데에는 확실히 이점이 있다. 선교사들은 종종 구도자들과 복음 원리와 한국 문화를 융화시킨 개인적인 경험을 나눌 기회가 있다. 이러





한국 서울 성전은 그 아름다움과  
 위력으로 한국 성도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위쪽) 우측: 성전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 어머니와  
 아기. 맨우측: 시골의  
 기름진 땅에 만발한  
 화려한 꽃과 교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세미나리에  
 참석한 학생들





한 개인적인 간증을 새로운 회원들이 생활 방식을 바꾸도록 하는 데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 영원히 중요한 것을 아는 일

한국 회원들, 특히 사업계에 종사하는 회원들이 직면하는 가장 커다란 문제는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는 문제이다. “이곳에서 특히 사업계와 사교계에서는 음주와 흡연이 생활의 한 방법입니다.”라고 둔촌 지부 회원인 주덕영 형제는 말한다. “일과 시간이 끝난 후 남자들은 보통 술집에 가서 친목을 위해 술을 마시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그들의 생활과 일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말일성도들은 일이 끝난 후에도 교회 일을 해야 하고 가족들을 위해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건강과 관련된 영원한 원리라는 것과 가족이라는 조직이 영원한 것이라는 개인적인 지식이 없었다면 여러분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사업에서 성공하고 있다고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회원들은 무엇이 영원히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주 형제에 대해서 알아야 할 또 한 가지 사실이 있다. 상공부에서 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그는 한국 교회 회원 중에서는 정부의 가장 고위직에 있다. 그의 모든 동료들이 그가 지닌 표준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때로는 그러한 표준을 부러워하기까지 한다.

“복음은 근면과 정직, 그리고 양심에 따를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설명한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친절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대단히 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친척의 일이 아닌 이상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저의 일을 제쳐두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종종 놀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가 진심으로 도우려 한다는 것과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비이기적인 친절을 받는 사람들의 생활에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나주에 사는 열여섯 살난 서진우 형제는 지금도 힘차게 활동하고 있는데 그는 오늘의 자신이 있도록 도와 준 가족들과 복음 안에서 친구가 된 이들이 보여 준 사랑과 신앙에 감사하고 있다.

진우는 학교에서 휴식 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화가 난 반 친구 하나가 막대기로 진우의 머리를 내려쳤다. 깜짝 놀라기는 했으나 별 이상이 없어서 교실 뒤쪽으로 걸어가던 진우는 의식을 잃고 마루 바닥에 쓰러졌다.

서진우 형제의 가족들은 그로부터 십삼일 동안 온종일 병자 축복과 기도 그리고 간병에만 온갖 정성을 쏟았다. 여름 날씨는 몸에 물집이 생길 정도로 더웠으며, 게다가 병원에는 냉방 시설도 되어 있지 않았고 간호사도 몇 명이 되지 않았다. 진우의 부모인 서영원 형제와 김경자 자매는 불덩이처럼 열이 나는 아들의 체온을 내리느라고 찬 물에 적신 수건을 계속 가져다가 아들의 몸에 올려 놓기가 바빴다.

“회원들이나 선교사들이 항상 아들 곁에 있었습니다.”라고 서 형제는 지난 날을 회상한다. 많은 회원들이 간병에 지친 진우 형제 부모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병원을 자주 들러 주었다. 이윽고 진우의 이름이 서울 성전의 기도 명부에 올려지기에 이르렀고 광주 스테이크의 회원들이 특별 금식을 하기도 하였다.

“의사들과 간호원들이 죽음을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들이 회복되리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들의 회복을 굳게 믿었습니다.”라고 김 자매는 말한다.

두 번의 수술 끝에 진우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으며 의사들의 예측과는 달리 뇌에 손상을 입지도 않았으며 사고로 인한 후유증도 없었다.

“우리에게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라고 김 자매는 말한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어디서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를 확실히 배웠습니다. 진우의 경험으로 인해 우리 가족과 지부 회원들의 신앙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전보다 더욱 가까워졌으며, 더욱 하나가 된 느낌이었고, 또 서로에 대해서 그리고 서로의 필요 사항에 대해서 더욱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봉사해야 한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숫적으로는 이 나라 인구의 칠백분의 일밖에 안되지만, 복음이 주는 평화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 한국의 말일성도들은 이러한 굳은 결심을 바탕으로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영원히 피는 꽃 무궁화와 같은 굳은 생명력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말일성도들을 더욱 빛나게 하고 있다. □



# 교회 회원이 아닌 부모님

사진 촬영 : 스티브 번더슨과 필 서틀러프, 모델이 포즈를 취함

케이스 늘

**영** 원한 가족에 대한 말씀이나 공과를 들을 때 슬픔을 느끼니까?  
부모님이 활동이 저조하거나 말일성도가 아니어서, 과연 내 가족이 승영에 이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만 그런 경우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 가운데 어느 한 분만 교회 회원이거나 두 분 모두 회원이 아닌 상태에서 교회에 다니는 말일성도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다음은 그들의 제언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이 믿지 않으실지라도 복음은 여전히 참되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이 진리를 변경시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께 의지하십시오. 자주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곁에 가까이 계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만큼 여러분의 부모님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느 누구도 비난하지 마십시오. 특히 여러분 자신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이 교회에 가지 않으시는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진짜 이유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와 줄 수 있는 친구들을 찾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어려움을 견디면 큰 축복이 옵니다. 언젠가는 상황이 바뀌어 훨씬 좋아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부모님이 여러분의 강요를 받지 않고서도 교회의 가치를 아실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 **훌륭한 모범을 보이십시오.** 모든 모임에 참석하십시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부모님이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다고 알고 계시는 표준에 따라 생활하십시오.

• **부모님께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부모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이 그 사랑을 아시고 또 느끼실 수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을 가르쳐 주신 부모님에게 감사함을 표하십시오.

• **여러분의 목표를 부모님께 말씀드리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선교 사업을 나가고 성전에서 결혼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부모님에게 알린다면 그러한 일에 대비하도록 부모님께 알리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 **모임에 부모님을 초대하십시오.** 부모님에게 모든 모임에 참석해 달라고 사정하지는 않더라도, 여러분이 참여하거나 말씀하는 어떤 특별한 모임에 부모님이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거라는 것을 부모님이 아실 수 있게 하십시오.

• **부모님의 일을 도와드리십시오.** 부모님이 집과 가족을 돌보는 일을 도우십시오. 부모님의 계획과 하시는 일에 관심을 보이십시오. 그저 아들이나 딸이 되려고만 하지 말고 사랑하는 친구가 되도록 하십시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지  
..... 않도록 하십시오. ....

여러분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한 가지 이유로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빠가 교회에 나가시기만 하면 우리 집에는 더욱 훌륭한 영이 함께 할텐데. 그러면 나도 형제들과 싸우지도 않을 거고, 공부를 더 잘해서 더 좋은 성적도 받을 수 있을텐데.”



### 필리핀에서 울리는 노래

필리핀 다엣 지방부 라보 지부는 1990년에 알로나 자매와 요날린 알라온 자매가 침례받은 후부터 합창 소리가 훨씬 더 아름다워졌다. 두 사람이 지방부, 마을, 구 및 종교 단체의 노래 대회에서 상받은 것을 합치면 50개가 넘는다.

그들은 또 지부에서 선교 사업도 돕고 있다. 그들의 훌륭한 모범 덕분에 그들의 부모님도 침례받았다.

열 다섯 살인 알로나는 대중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것 외에도 응원단장으로 활동하는 것과 워드 음악 책임자로 봉사하는 것을 좋아하며, 열 두 살인 요날린은 청녀회에 속해 있다는 사실에 흠족해 하며, 배구를 좋아한다. □



그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가능하면 자신의 생활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짊어지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부모님도 종교에 관계없이 그러한 여러분의 결심에 대해 감탄하시고 존중해 주실 것입니다. 또 그러한 결심을 통해 여러분은 궁극적으로 자신이 어떤 삶의 길을 걸어야 할지를 결정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낙담에 빠졌을 때

적극적인 사고 방식이 때로는 힘든 상황을 헤쳐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낙담에 빠지면 다음 사항들 가운데 하나를 반복해서 생각하도록 해보십시오.

“행복은 종착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행하는 태도에 있다.”(마가렛 리 런백)

“여러분이 직면하게 되는 가장 커다란 싸움 가운데에는 여러분 자신의 중요한 영혼의 방 안에서 치러야 하는 싸움들도 있습니다.”(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평안할지어다. 네 불행, 네 곤고는 잠시 동안이니, 만일 네가 이를 잘 견디어 내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 받들어 올릴 것이요”(교리와 성약 121:7~8)

“마음을 놓으라. 의롭게 생활하는 자를 위하여... 만사는 협동하여 유익하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100:15) □

### 루마니아에 원조 물자를 보낸 웨일즈의 청년들



### 루마니아 원조

메티르 텃필 스테이크 스웬시 제1와드의 청년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루마니아 국민들의 사진을 보고 이들을 도울 생각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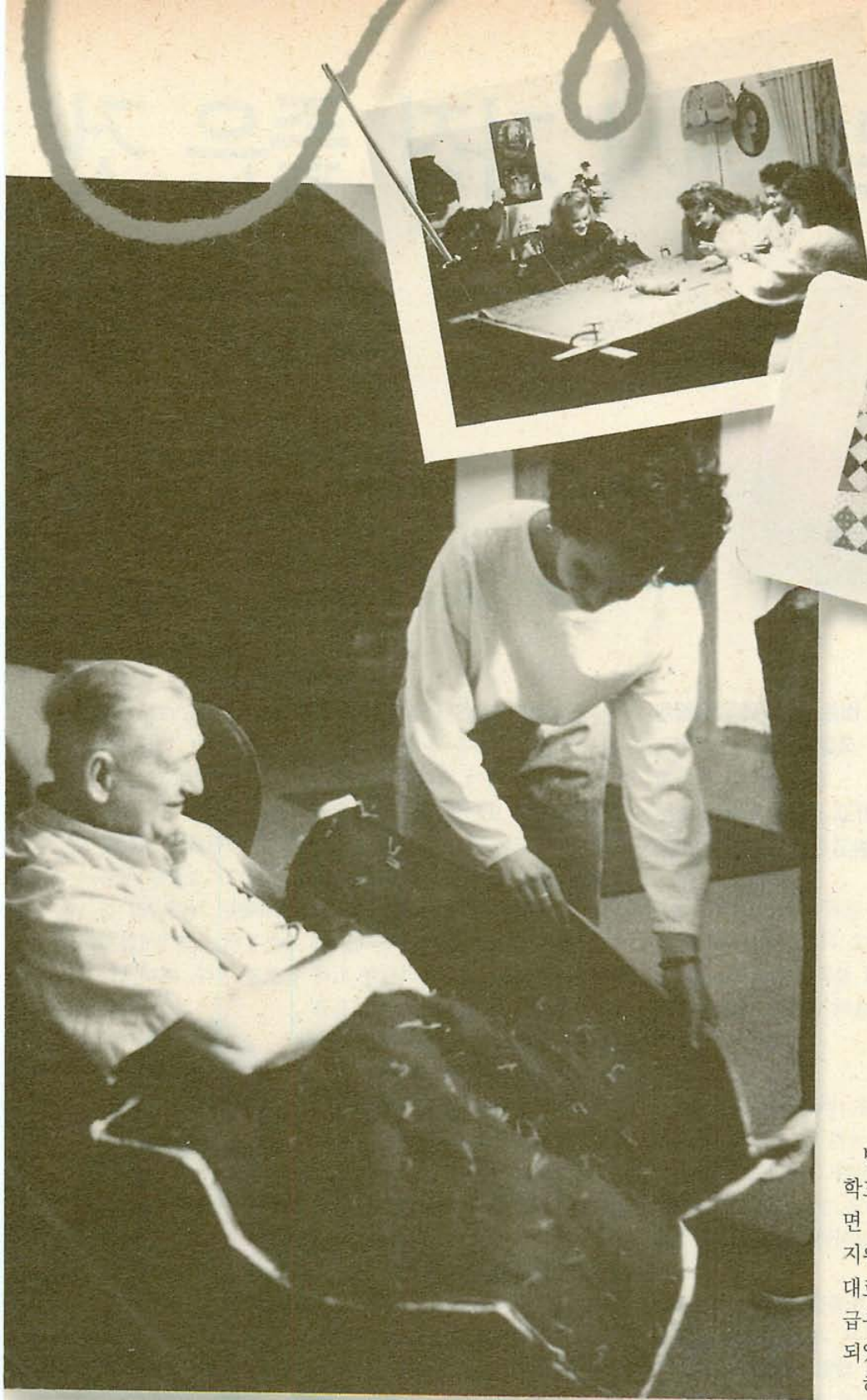
그래서 그들은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찾아 다니며 모금 운동을 벌였다. 모금 대상은 돈 뿐만 아니라 물건도 포함되었는데, 물건을 와드에서 경매를 하여 돈을 모았다. 이 경매를 위해 용역을 제공받는 것도 모금 운동에 포함되었다. 마을 사람들이 거의 모두 경매 장소에 온 것 같았으며, 모은 돈으로 매우긴요한 식량과 의약품 및 옷 등을 구입했다. □

### 적절한 때의 한 바늘이 열 바늘의 수고를 단다

누구에게나 약속 장소에 서둘러 갔다가 시간만 허비하며 혼자 우두커니 기다리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유타주의 아메리칸 포크 북 스테이크 아메리칸 포크 제15와드의 청년들은 그런 시간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로 결심했다. 기다리는 동안 누비이불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그들은 매달 고문과 함께 개인 발전에 관한 접견을 갖는데, 그 접견을 전후해 고문집의 거실에 설치되어 있는 누비틀로 가벼운 누비이불을 만드는 작업을 한다. 재료는 와드 회원들이 기증해 준다. 이





렇게 해서 완성된 누비 이불은 지역 요양원으로 보내진다. 청녀들의 말에 따르면 누비 이불을 전달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즐거운 일이라고 한다. 요

양원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청녀들은 이 사업을 무기한 계속하기로 했다. □

### 활동한 선교사

반에서 유일한 교회 회원인 채로 학교를 졸업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 선교부 리지웨이 지부의 테이미 쉬크가 했던 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테이미는 급우 2명을 개종시키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선교 사업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학급에 몰몬경을 기증하고 말일성도가 아닌 선생님에게 몰몬경 한 권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반 조사 보고서에 교회 역사에 관한 것을 쓰기도 했습니다. □



#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좋은 것

리사 에이 존슨

사진 촬영 : 리사 에이 존슨

장물 사진 촬영 : 에드 랄라크



바르셀로나의 건물들은 색깔이 밝고, 대담하고, 아름다우며, 복음에 따라 생활하고 간증을 함께 나누는 그곳의 청년들의 모습도 밝고 대담하며 아름답다.

**지**난 해 바르셀로나에서 올림픽이 열렸을 때,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화려하고 다채로우며 복합적인 도시에 온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의 말일성도 청년들은 그들의 이목을 어디에 집중시키는가?

아마 깜짝 놀랄 것이다.

1992년 하계 올림픽 경기 기간 중, 여러분은 바르셀로나의 놀라운 조각과 디자인, 음식, 국기 및 문화 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말일성도 청년들이 맨 먼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아니다. 그들이 정말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나누는 것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바르셀로나의 독특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거의 당연한 것으로 여길 만큼 그들의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말일성도 소녀들은 복음이 그들의 삶에 끼친 심오한 차이가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복음을 함께 나누는 것과 같은 일을 매우 활발히 하고 있다.

“교회의 청소년들은 거의 늘 행복한 생활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바깥 사람들과의 실질적인 차이입니다.”라고 15세의 메릭스텔 토마스는 말한다. 스테이크 내의 다른

청년들처럼 메릭스텔 토마스도 개종자이다. 그들 대부분은 친구나 선교사들을 통해 교회를 안 사람들이다. “저는 여기에서 만일 내가 계명을 지킨다면 그것으로 인해 나는 자유롭게 되며 또 행복해진다는 것을 배웁니다.”

만일 누구든 이 소녀들을 잘 살펴볼 수만 있다면 그들의 마음에 이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매우 바쁘게 생활한다. 오전 6시 30분에 시작하는 세미나리 참석을 위해 일찍 일어나야 하며, 8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수업을 한 다음 메디오디아를 위해 집으로 온다. 메디오디아란 점심을 뜻하는데, 어머니들은 가족들을 위해 하루 중 가장 푸짐한 식사를 준비해 놓고 계신다.

식사를 하고 난 뒤에는 간단히 낮잠을 자야 한다. 그러나 4시가 되면 학교로 다시 돌아가 2시간 동안 더 수업을 한다. 귀가하는 시간은 6시이며, 집에 돌아오면 거의 매일 받아오는 “산더미” 같은 숙제를 시작해야 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저녁 시간에 시간을 낼 여유가 없지만 이따금 선교사들과 함께 길에서 전도를 하기도 한다. 교회 활동과





요셉 스미스는 당시 그의 지역에서 과감하고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였다. 바르셀로나의 청녀들도 그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들은 선교 사업을 좋아한다.



특별 행사는 언제나 토요일에 갖는다.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바쁜 일과 때문에 바르셀로나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말일성도 되기가 가장 힘들다고 말한다. 교회 모임과 교회 사

업과 토요일과 일요일에 갖는 활동 뿐만 아니라 여흥을 즐길 시간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도시에 사는 다른 사람들은 일요일이 되면 운동 경기나 연주회장에 간다. 교회 회원들은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으며 말일성도가 아닌 친구들과는 함께 놀 시간도 거의 없는 경우가 흔하다.





어머니나 딸이나,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바르셀로나의 거의 모든 교회 회원들은 선물을 주는 바르셀로나의 전통을 이용하는 등,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방법을 사용하여 복음 전파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바르셀로나의 청년들은 말일성도가 아닌 친구들에게 교회를 소개하는 것으로 보상을 삼으려고 최선을 다한다. “친구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선교사님들을 보게 되면 저는 언제나 선교사님들을 불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라고 14세의 누리아 히메네스는 말한다. “그러면 친구들이 묻죠 ‘저 사람들 누구니? 너 아는 사람들이니? 이상하게 생겼는데?’ 바로 이때 제가 설명해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는 거죠.”

이곳의 청년들은 복음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는다. 그들은 심지어 공휴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 예를 들면, 4월 23일은 다른 나라에서 갖는 발렌타인데이와 매우 유사한 “디아데산 호르데(성 조지의 날)”인데 바로 스페인의 위대한 문학가인 세르반테스의 사망 기념일이기도 하다. 이 날이 되면 바르셀로나가 위치해 있는 스페인의 일부인 카탈로니아에서는 남자가 여자에게 장미 한 송이를 선사하고 또 여자가 남자에게 책 한 권을 선사하는 전통이 있다.

그런데 바르셀로나의 말일성도 소녀들은 그 전통을 변형시켰다. 그들은 크레이프 종이로 장미를 만들어 물문경 책갈피에 끼운 뒤 선교사들을 도와 그 물문경을 선물한다. 4월 23일에는 어느 누구도 책이나 장미를 거절하지 않는다.

복음을 전하면서 얻는 기쁨은 강건한 말일성도 청소년들이 놓칠 수도 있는 다른 일들에 대한 보상 그 이상의 것이다. 사실 이 소녀들은 선교 사업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 모두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전 모든 사람들이 선교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라고 17세의 몬트세 베르무데스는 말한다. “선교사로 봉사하는 지역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인

생을 살아갈 준비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바르셀로나의 청년들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민족에 대한 진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스페인 하면 투우와 플라멩고 춤을 떠올리죠.”라고 17세의 두네이아 카브란은 말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카탈로니아를 다 안다고 할 수는 없다. 비록 거의 모든 사람들이 카스틸라어를 사용하지만 라틴어에 기원을 둔 카탈로니아어도 다른 지역과는 구별되는 점이기 때문이다.

그 지역에서 먹는 음식도 다른 지역과는 사뭇 다르다. 스페인의 각 지역에서는 특유의 스투를 갖고 있는데 소세지와 콩과 야채를 색다른 방식으로 섞은 것뿐이다. 그러나 카탈로니아의 소녀들은 아침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관계없이 *판콘토마테*라고 부르는 간식을 가장 좋아하는데, 이것은 토마토 양념을 바르고 때로는 약간의 올리브유도 바른 하얗고 딱딱한 스페인식 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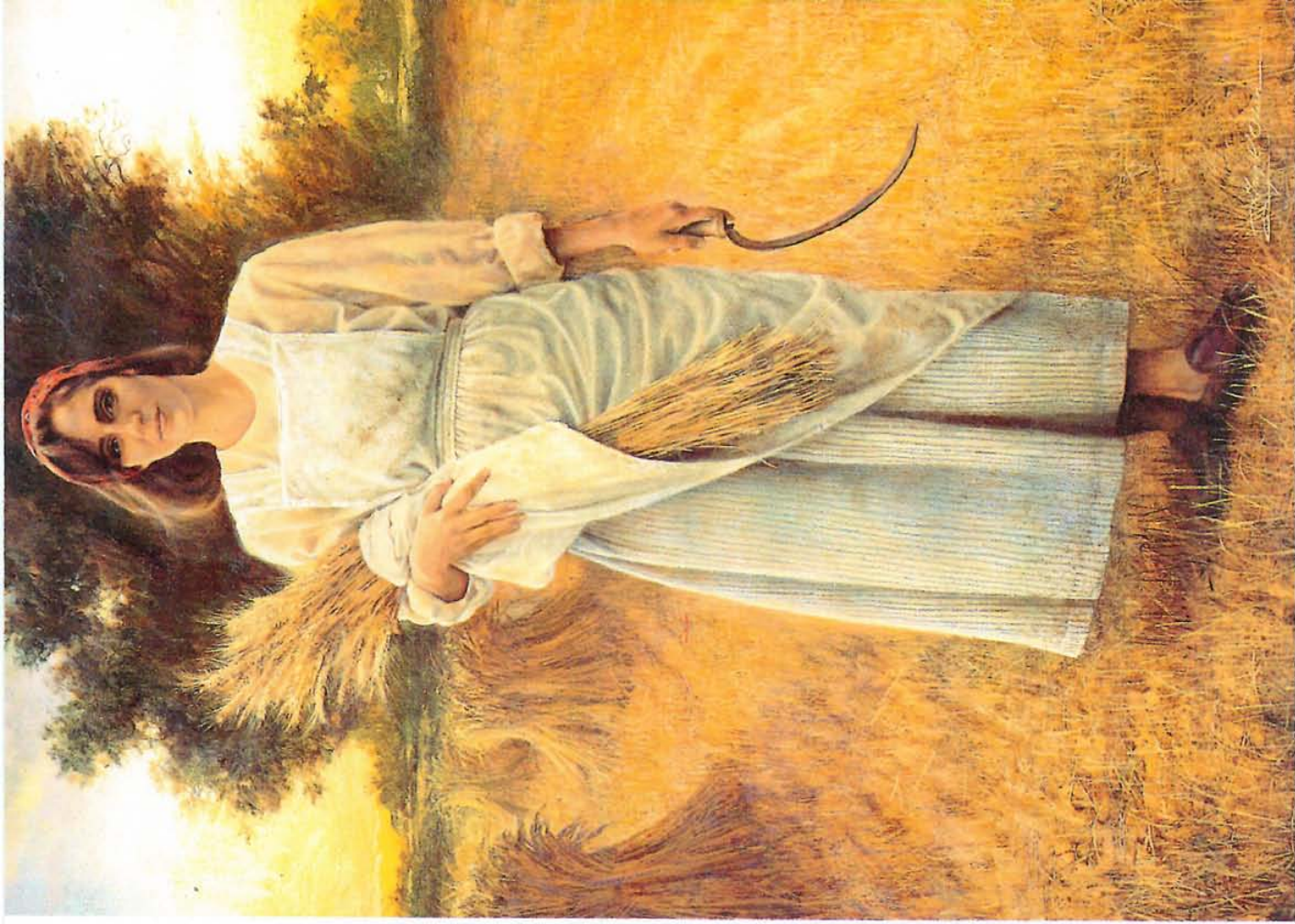
물론 건축에 있어서도 바르셀로나는 다른 지역에 비해 단연 두드러진다. 그곳의 건축은 대담하고 과감하며 독특한 것으로, 말일성도 소녀들이 취하는 신앙도 이와 매우 흡사하다.

이곳에는 비록 이례적인 것이긴 하지만 무언가 훌륭한 일을 해보겠다는 과감한 정신, 즉 용기가 있다. 바로 그러한 용기를 바르셀로나의 건물들에서 볼 수 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파함으로써 무언가 훌륭한 일을 해 보겠다고 할 정도로 용감한 이곳 청년들의 생활에서도 엿볼 수 있다. □





새벽리는 자 (마태복음 13:3 참조)와 추수하는 자, 그레그 케이 올슨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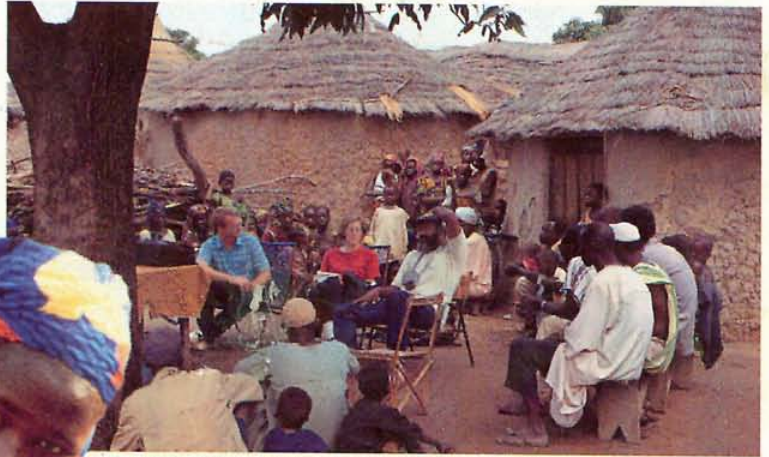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회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 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4:35~36)



말리 공화국의  
 윌레스부구에 살고 있는  
 3만 5천 명의 주민들은  
 그곳에서 최초로 침례받아  
 교회 회원이 된 모디보  
 디아라(표지 인물)의  
 도움으로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시련이 축복으로”, 8쪽  
 참조



MALI PHOTOGRAPHY COURTESY OF THE OUELESSEBOUGOU-UTAH ALLIANCE

